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조현준 효성 회장, 문화예술 사회공헌 확대..장애예술가 창작-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등 지원

국승한 기자 승인 2022.12.26 14:50 | 최종 수정 2022.12.26 15:08 의견 0



효성그룹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후원 [자료=효성]

[한국정경신문=국승한 기자] 효성그룹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메세나 (Mecenat)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도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효성은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기도 했다.

효성은 2017년 부터 장애우들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단법인 '배리어프리 영화 위원회를 후원하며 매년 2편의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돕고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누구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을 음성으로 해설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사, 소리, 음악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한다.

올해에도 효성은 지난 9일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진행된 ‘제12회 서울배리어프리 영화제 개막식’에서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더불어 효성 직원들이 직접 더빙과 오디오인트로 녹음에 참여하는 등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배리어프리영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효성은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18년부터 효성이 후원하고 있는 국내 최초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이다.

후원금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장애예술가들의 작품 재료 구입과 전시 비용, 아카이브 제작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에 홍세진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창작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UP 0
DOWN 0

한국정경신문 국승한 기자 sorrie@nate.com
국승한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 "메세나 기반 취약계층 문화생활 후원"

송고 2022.09.28 15:23 | 수정 2022.10.20 18:52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 **배리어프리 영화제작 지원..."소외계층 지원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효성이 후원하는 잠실창작스튜디오 작품 전시.ⓒ효성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들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배리어프리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활동으로 효성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있다.

1등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
SSEM

ssem.kr

조현준 회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꾸준히 지원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효성은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도 제약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배리어 프리 영화 위원회를 후원하며 매년 2편의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돕고있다.

배리어 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을 음성으로 해설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사, 소리, 음악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영화 '남매의 여름밤'과 '드림빌더' 제작을 지원했다. 특히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효성 직원들이 직접 더빙작업에도 참여하는 등 재능기부와 함께 배리어프리영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효성은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18년부터 효성이 후원하고 있는 국내 최초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 창작 공간이다.

후원금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장애예술가들의 작품 재료 구입과 전시 비용, 아카이브 제작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효성과 함께하는 올

해의 작가'에 홍세진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창작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효성은 음악가를 꿈꾸는 취약계층을 위해 2014년부터 발달·지적 장애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 챔버'를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교육비, 악기구입과 단원 장학금에 사용되고 있다.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는 전문음악인 선생님 40여명과 단원 60여명의 규모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수준의 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로 성장했다. 또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의 티칭 클래스에 온누리 사랑챔버 단원들을 초청하여 단원과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지원했다.

효성 관계자는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 대학에도 진학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약품, 제148회 아트엠콘서트 'CelloXGuita'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현대약품, 제148회 아트엠콘서트 'CelloXGuita' 개최./사진제공=현대약품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대약품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첼리스트 심준호와 기타리스트 박준호와 함께 148회 아트엠콘서트 'CelloXGuitar(첼로X기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첼리스트 심준호는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여 금호문화재단의 영재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인 금호영재콘서트를 시작으로 중앙음악콩쿨 우승과 쥬네스 뮤지컬 국제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을 차지했다.

기타리스트 박종호는 5세에 클래식 기타를 시작하여, 9세에 전국 기타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다양한 국내 기타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를 받으며 최고점으로 졸업했다.

이번 공연은 첼로와 기타 선율의 하모니가 어우러져, 하비에르 콘트레라스의 디프티코 라틴 아메리카노와 카르톨라의 장미들은 말하지 않는다, 까심비뉴의 나는 평화를 원한다 등을 연주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첼로와 기타의 선율이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클래식의 낭만과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로 준비했다"며, "최상급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통해 클래식 선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약품은 지난 2009년부터 '아트엠콘서트'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 및 젊고 유망한 라이징 스타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세번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한 예약과 특정 기념일 관람 시 기프티백 및 현대약품 '랩큐' 토너를 증정하는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메세나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pji2498@naver.com

아시아뉴스통신
2022년 07월 13일
(경제)

현대약품, 노부스콰르텟 소속 첼리스트 이원해와 함께하는 아트엠콘서트 '7월의 일기'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현대약품, 노부스콰르텟 소속 첼리스트 이원해와 함께하는 아트엠콘서트 '7월의 일기' 개최 ./사진제공=현대약품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대약품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네이버 V-LIVE를 통해 실력파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멤버, 첼리스트 이원해와 함께하는 144회 아트엠콘서트 '7월의 일기'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원해는 프랑스 '볼로뉴 시립음악원'과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 음악원'의 최고연주자 과정 등 다양한 곳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수석으로 졸업한 바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다.

바로크콩쿠르 1위, 성정콩쿠르 1위, 이화경향 음악콩쿠르 2위 등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 독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을 하며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세계적인 페스티벌 중 하나인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오케스트라 수석 및 단원으로 참여했으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지에서도 초청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창대관령음악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리, 금호 영아티스트 독주회 등을 비롯해 2020년 11월부터 노부스 콰르텟의 첼로 주자로서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원해는 이번 공연을 통해 베토벤의 '사랑을 느끼는 남자의 마음은' 드보르작의 '고요한 숲, 작품번호68', 프로코피예프의 '첼로 소나타 다장조, 작품번호119' 등 첼로의 넓은 음역대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보인다.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국내 정상급 현악사중주단 멤버의 독주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무더운 여름날 저녁, 편안한 첼로 음악과 함께 휴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엠콘서트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현대약품이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14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이며 국내외 실력파 아티스트 및 젊고 유명한 라이징 스타들을 무대에 세운 바 있다. 현대약품은 아트엠콘서트를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으로 세번째 인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아트엠콘서트는 시청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자 채널 가입 및 실시간 댓글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pji2498@naver.com

아시아뉴스통신
2022년 06월 13일
(종합)

현대약품, 제 143회 아트엠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콘 아모레'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현대약품, 제 143회 아트엠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콘 아모레' 개최./사진제공=현대약품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대약품이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네이버 V-LIVE를 통해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함께하는 143회 아트엠콘서트 '콘 아모레'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대에 서는 백주영은 커티스 음악학교 학사, 줄리어드 음대에서 석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바이올리니스트다. 아론 로잔느와 로버트 만을 사사했다.

1994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대회에서의 우승을 시작으로, 1997년 동아 국제 콩쿠르 최고상, 2000년 영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오디션 우승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졌으며, 노르웨이와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오케스트라와 KBS, 서울 필하모닉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다.

라비니아 페스티벌과 브릿지햄튼 실내악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여름 음악 페스트벌 등 세계 각국의 뮤직 페스티벌에도 참가한 바 있다.

이번 아트엠콘서트에서 백주영은 피아니스트 박진우와 함께 '예정을 담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라는 공연 콘셉트에 맞춰 베토벤의 '로망스 2번 바장조',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인다.

또 실시간 생중계 연주 및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댓글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과 탈모샴푸 '마이녹첼', 기능성 화장품 '랩클' 등 경품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진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따뜻한 날씨와 함께 관객과 만나게 되는 이번 무대는 공연 콘셉트처럼 사랑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곡들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여유로운 초여름날의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약품은 지난 2009년부터 '아트엠콘서트'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 및 젊고 유망한 라이징스타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세번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pji2498@naver.com

컨슈머타임스
Consumer Times

해양환경공단,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획득

안우진 기자 | 승인 2022.12.05 00:02

2022년 신규 인증기관 중 공공기관 유일



해양환경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제도'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은 모범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있는 단체와 기업의 조직역량, 운영체계, 문화예술후원 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곳이 선정됐고 올해 8곳이 신규 인증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장애인 바다DREAM 그림대회, 해양환경 교육동화 개발·후원. 어촌체험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등 지역사회 복합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욱 해양환경공단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지역의 배려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해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우진 기자

브릿지경제

2022년 12월 28일
(IT,과학)

제약업계 '문화' 주제로 한 특별한 사회공헌 활동 '주목'

연극·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적극 지원…"선순환 구조 만든다"



국내 제약업계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를 주제로 한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내 제약업계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를 주제로 한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제약사가 연극·공연·미술 등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등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이들에게 다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미약품은 2002년 공익법인 가현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사진전문 미술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진 문화 저변 확대와 한국 사진 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와 함께 개최하는 자선 음악회 '빛의 소리 나눔 콘서트'를 통해 장애 아동들의 예술 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공연 예술의 버팀목인 연극인들과 극단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한미약품은 25일 열린 '제60회 K-Theater Awards'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해 공연 예술 발전에 헌신해온 연극인과 극단에 2000만원 규모의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은 '자랑스러운 연극인상(개인·단체)'과 '창조와 도전상', '대상'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연극인 16명과 극단 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자로 참석한 한미약품 커뮤니케이션팀 박중현 전무는 "많은 연극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으로 연극계를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공연 예술의 기반이 되는 연극이 가치를 인정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약품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월드비전과 '월드비전 합창단 2022 세브란스병원 초청연주'를 개최했다.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드비전 합창단은 A팀과 B팀으로 나눠 서로 다른 매력의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냈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1960년 8월 창립해 활동 중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합창단 중 하나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월드비전 합창단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월드비전 합창단 김보미 상임지휘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후원으로 월드비전 합창단이 이런 뜻 깊은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국약품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미술 신진 작가에 대한 지원과 활동 기반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소외지역 주민이 수준 높은 미술 문화를 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 회사는 미술 신진 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 공로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 예술 후원 우수기관 재인증'도 획득했다. 안국약품은 2016년 처음으로 문화 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2019년 재인증에 이어 3년 인증이 만료되는 올해 재인증을 받았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안국문화재단과 AG갤러리에 대한 후원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작가에 대한 홍보·상담지원, 컨설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매일경제
2022.2.10 12:32 기준
(2면)

촉망받는 미술작가 4인방, '키다리아저씨' 만났다

'1억짜 신예작가 위한 서포' 후원자
한국예술사업회 '컬렉션 다기획'

서현·김아영, 권미원展~신진우 다이
한국화화랑·지앤아, 7월~8월부터 3인 후원

(생략)



12월 시장 위축에도한 한국업체의 예술문화적인에 따라사업 한국기 개막회 기관의 '1억짜 미술작가 후원사업 후보자가 발탁이. 김씨근 한국예술사업회 회장(기업미술 갤러리, 아가트이 창립 회장)은 [서면 제공 = 한국예술사업회]
김남길의 서양화, 조진우, 김지원 및 최정남도 이용 학기 서강대이 하다이 하하여 참도 이정 후원을 받았다.

한국예술사업회는 오랜 한국예술계와 국립과 공기고이문스에서 '1억짜 미술작가 지원 사업'이 추천작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술작가 4인을 지원하기 위한 6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2시 간이 넘게 투표를 이어갔다.

한국예술사업회는 수내에 문성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억짜 미술작가 후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다. 기존의 예술관련단체에서와 함께 하는 개최 전시지에 지원 비교에 선정과 지기술이 참가하다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파트너 연결해주는 점이다.



(생략) 후원자로 참석한 'the Foster's (Golden)'(2020, Oil on canvas, 112.1 x 145.5 cm [서면 제공 = 한국예술사업회]
올해는 (생략), 서울옥화화, YIM홀 등등등이 등 6개 기업이 각각 참여해, 권은주 · 서현씨, 김성도 씨이를 후원한다. 후보로 서현 [올해 기업은 총 1억을 놓여있다. 지난해에 노 예기나이즈이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한국예술사업회]는 다른화랑과 달리 후원 기업에 후원을 약속했다.

서현 작가가 후원 기업 서하주 김선영 작가를 지명했다. 서현씨 선택한 청색의 하얀색 지우개로 찍어서 특별한 점 작가의 특징이 나고를 알고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업이 참여한들에게 부부분 작가에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생략)후원자로 참석한 이진우 'Entropy' (2021, oil painted work on wood, 140x120cm) 사진 제공 = 한국예술사업회]
하이이들이 이번에 작가의 작업 참여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이들 최정화이 이나의 문화 예술 무용을 위해 사회에 필요을 전파해도 했어하도 한 작가가 후원심화이 선택했다. 그 작가가 후원심화이 선택했다. 그 이유이 많은 예술에 관심을 기업이로 다양한 예술에 올려준다이 점을 인정하기로 했어했다고

김남길화랑은 그작품에게 전시기회 하는 점적이 기술을 사람이 작가이 작품에서 찾았다. 김 대학원에 본학생인 '그리에게 색종도' 같은 문화를 선도하고는 시대 이라 '예술은 그 중요에 있다'고 이유. '그러하면 한국화이 독창문을 이끄면서 다양한 대상을 함축해가는 그의 작업 방식은 필요하이 들어올 지원이로 한다이기다고 말했다.



장승택화랑은 후원하는 서양의 작가이 'Mashup_s~07 (2022) Fiberd, acrylic gouache, acrylic, screw paint and cotton on Korean mulberry paper, 30 x 70 cm. [서면 제공 = 장승택화랑]



YIM이 후원한 김성두 'Hamanoukoi' (2021, Glass,Gold Leaf, 78x60cm [서면 제공 = 한국예술사업회]
심기로 하고 기업 기획이 심심이 하기해 주목했다. '우리 시장 현실의 결정 비중적 시기로 특정하고 다시그자' 라는 작가이 예시시에 공감한 YIM이 '작년 서울을 시작으로 참여 범위에 필한 관심을 더욱 확대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국예술사업회 김희다 회장은 "심미 예술과 비교해면 대기 활동을 기반하여 참신 작품한 기업 자신 작품이 참여에 주력한 일정 등록에 "학기들이 성장을 돕는 기업이 선정하다 비교이 계획한다면 이용 비율에 이어는 한편 분야를 넓기이하고 밝혔다.

한편 본화화랑사업주의 확대하다 예술감정이전에서는 김해우는 서울 번화하에 작업실에서 '예술 하나하기에 지원 사업 을 통해 인정성 차원 보로 이용이 확산하는 한국 학기 기술이 작품 화가하들 소개하는 관계 기대하겠다.'고 Shakespeare를 인용했다.

(이하 생략)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1790억원

2022년 07월 05일 (화) 11:16:14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가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1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 총액은 1790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12억 원) 증가했다. 지원 기업 수(493개 사), 지원 건수(1051건)도 각각 10.3%, 26.4% 늘었다.

지원 총액 증가로 보이지만,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등 인프라 운영 침체기를 활용해 재투자한 활동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예술계에 직접 지원 금액은 감소했다.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중 가장 높게 집계된 인프라 분야 지원 금액이 1055억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1억9100만 원) 증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통적으로 지원 규모가 컸던 클래식(116억700만 원) 분야는 전년 대비 14.6%(14억7900만 원) 늘었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지원 규모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미술·전시(-8.7%), 문화예술교육(-2.6%), 문학(-7.7%), 국악·전통예술(-28%), 연극(-8.2%), 영상·미디어(-21%), 무용(-10.2%) 분야의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개별 기업이 예술계에 직접 지원한 금액은 2년 연속 하락세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 263억7800만 원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에도 30억7900만 원이 줄었다.

반면 미술관, 공연장 등 대규모 인프라를 주로 운영하는 기업 문화재단을 통한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42억8400만 원 늘었다. 특히 미술 관련 인프라를 운영하는 문화재단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시 관람 사전 예약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에 신속 대비하며 대규모 집합 활동이 필수적인 공연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술 장르의 운영이 원활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순위	기업	재단
1	KT&G	삼성문화재단
2	현대백화점	롯데문화재단
3	현대자동차	LG연암문화재단
4	DL이앤씨	두산연강재단
5	크라운-해태제과	GS칼텍스재단
6	롯데백화점	CJ문화재단
7	신한카드	현대차 정몽구 재단
8	부산은행	대산문화재단
9	삼성화재해상보험	KT&G복지재단
10	한화생명	금호문화재단

개별 기업 부문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KT&G의 지원 규모가 가장 컸다. KT&G는 서울, 춘천, 논산, 부산 등의 지역에 'KT&G 상상마당'을 운영하며 음악, 디자인, 인문학, 사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원예술 등 비주류 장르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업 출연 재단 부문에서는 2021년 '리움미술관'을 재개관하고, '호암미술관' 운영 및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진행한 삼성문화재단이 1위를 유지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술 융합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예술계는 기술을 적극 활용해 창작의 지평을 넓히고, 기업과 정부는 예술계가 새로운 미래형 콘텐츠를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업과 투자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 제주레저신문(http://www.leisure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내외일보

2022년 10월 27일
(경제)

한국메세나협회, 10월 26일 '기업 메세나 전국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예술의 균형발전 위한 기업

이수한 기자

메세나의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활용한 ESG 경영 전략 제시 및 다양한 기업 사례 소개

올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한 관심 촉구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가 10월 26일(수),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업 메세나 전국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경남 제주 세종시 부산메세나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가운데, 기업 및 예술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메세나 활동의 확장적 역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ESG 경영을 위한 문화예술 활용법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술의 발전이 변화시킨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면면을 짚어가며 지역과 관련된 기업 메세나의 역할 확장을 강조했다. 소수의 국가가 주도하던 문화예술과 콘텐츠가 세계화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표출되는 가운데, 메세나 역시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적극적인 생태계 구성과 메세나 전국망의 구축을 통한 탄탄한 거버넌스 확충 등이 지역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발전의 지속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메세나법'이 진정한 메세나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김효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ESG+메세나'를 주제로 메세나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활용한 ESG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마스터피스 경영'과 '마스터피스 메세나'의 상관 관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마스터피스(제품, 서비스)로 소비자를 팬으로 만들고, ESG를 통해 사회 구성원을 감동시키면서 경제적 이윤 목표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마스터피스 경영'의 개념을 설명하며 "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메세나 2.0시대'를 넘어 기업과 예술이 감동적 관계를 맺는 '마스터피스 메세나(메세나 3.0)'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가연 제주메세나협회 부장은 지역예술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메세나를 내세우며 제주 기업 ㈜한라산과 롯데관광개발㈜의 활동을 소개했다. 끝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장, 황애경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사, 손수나 경남메세나협회 대리가 패널로 참여해 민간 예술후원 확대를 위한 메세나 기구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메세나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예술후원 환경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수한 기자 peongri@hanmail.net

부산일보
2022년 9월 21일
(온라인)

[에너지 뉴스] 전기안전공사,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外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직원(우측). 전기안전공사 제공

◆전기안전공사,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배기원)가 한무로부터 전기안전기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적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2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검정기준에 맞추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기안전공사에 이번 수상은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엄격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관리를 실행하는 사내 자격충족의 채널 운영 노력에 대한 평가다.

전기안전공사는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검사와 점검·진단업무 수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역량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다. 2013년까지 미비한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으로 인정받았다며, 최우 총 2218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와 국내 전기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선심 역할을 해왔다.

자격을 획득한 직원들은 급등주택, 전압설비, 국가주요시설 내 검사·점단·점검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업무계에서도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전기안전교육원 김성주 원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정 다양화정책에 따른 전기안전계에 혁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내 자격제도를 국가공인자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정주 본사에서 열린 제3회 Mine-Tech 페스타 혁신기술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OMIR 제공

◆KOMIR, 제3회 Mine-Tech 페스타 개최…전국대학 15개팀 참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이사장 홍구선, 이하 KOMIR)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업협회 등이 후원하는 '2022년 제3회 Mine-Tech 페스타' 혁신기술 경진대회를 공주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원산업 혁신기술과 미래'을 주제로 전국의 자원 관련 대학 1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석열대학교 김정재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KOMIR 환경연 사장은 "Mine-Tech 페스타를 통해 산업의 당시름이자 이해지점인 학생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더욱개 장화됐다"며 "우수한 젊은이들이 자원산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KOMIR가 힘닷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4시 울산 북구 염촌동 소재 '염달천에 문화예술인 연습센터' 구축 지원식에서 김정문 동서발전 사장(오른쪽 다섯 번째), 이순천 한매단체총연합 지이 대표(오른쪽 여섯 번째), 염달천에인 단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서발전 제공

◆동서발전, '염달천에 문화예술인 연습공간' 구축

한국동서발전(주)는 울산지역 '염달천에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공연 활동을 돕기 위한 문화예술 복지공간을 마련다.

동서발전은 21일 오후 4시 울산 북구 염촌동 소재의 '염달천에 문화예술인 연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정문 동서발전 사장, 이수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울산지사 회장 지정부동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달천에 문화예술인 연습센터'는 지역사회 시설놀이, 무용 분야 등 '염달천에인'의 다양한 공연 활동을 위한 연습 장소로 염촌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경력활동 이지를 높이고 저임금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동서발전은 센터 내 고효율 LED 조명과 친기 설비교체, 단열 도배, 장애인 화장실 소설 등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쾌적한 연습공간을 '구축했고, '염달천에인예술단'과다'에 참여 지속적으로 양자간 참물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쓰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충효원에인 문화예술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오케스트라 단원 1기들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 세계선수 생계지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상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오른쪽 아섯 번째)과 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이 업계 부산 도시철도 중앙역 일대에서 동행 캠페인을 시작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제공

◆남부발전-주택도시보증공사, 청렴 동행 캠페인 나서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 상임감사위원 김상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혁석)와 업계 21일 부산 도시철도 중앙역 일원에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동행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시 청렴시책 연관협의체 수혁선 및 기관이 상호협력해 부패방지 전략에 대한 식의점이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 청렴시책 연관협의체는 연관협의체 부패방지 세계 확립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민공감 형성확동 위해 2016년 10월 출범했으며, 부산시, 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한 20개 공공기관과 14개 연관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남부발전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은 스탕학금지법 관한 제도 소부세·공직선고자 연포제도 스마세종농장자 폐도 등별 단대적인 목표에 함께 참된 목표기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남부발전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KOREA, 선도기관 #3대이"를 키워드로 상호 협력 하에 스마계획이 주도하는 청렴의식 전파 스마실천 대국민고객부한운서) 제도 공모 스마청가명주수 청렴계약제도 공모 스마상 청렴활동을 통한 감찰 근절 활동 등 2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sanglk@busan.com

이데일리

2022년 02월 09일
(산업/무역)

페르노리카코리아, '국악 영재' 54명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차세대 국악 문화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악 영재 5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란츠 호른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이날 열린 국립국악중고교 온라인 졸업식에서 영상을 통해 수상자와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

올해 21년째를 맞이한 '페르노리카 국악 장학사업'은 창업자 폴 리카의 '예술은 우리 DNA 안에 있다(Art is in our DNA)'는 정신을 계승해 진행하는 예술 후원 활동이다. 한국 전통문화인 국악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이를 계승할 차세대 국악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발전과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한국 전통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예술 지원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2010년 표창을 수상하고 2020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지금까지 총 641명의 국립국악중고 국악 영재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전달된 장학금 규모만 약 25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장학금 규모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장학생도 매년 18명 추가 선발해 연간 54명, 향후 5년간 총 270여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악 장학사업 중 일부를 학생들의 국악 공연 후원으로 사용, 학생들이 더 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국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란츠 호른 대표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악 장학사업을 통해 그룹의 창업자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국악문화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22년 10월 14일
11면 (문화)

"문화 키운다는 자긍심에… 회사일도 술술 잘 풀려"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⑩

티스케이프-극단 스토리팜 1社1예세나

"부산이 제2 도시라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적 토양이 척박하죠. 고향 사람들도 평소 연극을 즐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형원 티스케이프 대표(49)가 6년 전 부산 방문 때 잠깐 여유를 틈타 소극장 연극 '로맨틱 VS 코미디'를 보고 신선하다고 느꼈다. 서울서 보던 연극보다 세련되진 않았지만 지진 부산 사투리가 정감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연극이 끝난 후 극단 스토리팜의 오승일 대표를 격려한 것이 계기가 돼 친분도 쌓게 됐다.

몇 달 후 재회했을 때 오 대표가 다음 연극을 무대에 올릴 비용을 걱정하자 정 대표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기업이 이윤 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할 때 말이다.

정 대표는 대기업(LX하우시스)에서 근무하다 2012년 티스케이프를 창업해 업무·교육·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전시 등 창의적인 공간디자인을 전문으로 업력을 키워왔다. 창업 초 2~3년간 공사대금도 떼이는 등 고전했지만, 그즈음



정형원 티스케이프 대표(왼쪽)와 오승일 스토리팜 대표.

찰진 사투리 부산 연극
무대 제작비 전폭 지원해
공연하고 웹드라마까지

정형원 티스케이프 대표
"고향 사람들에 예술 선물"
회사 이미지 좋아져 매출 3배

은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돼 사업이 안정되던 시기였다. 정 대표는 "어릴 때 나처럼 지방에서도 연극을 널리 즐기고 부산 색깔이 강한 연극을 서울에서도 공연하면 좋겠다 싶어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극단 스토리팜의 '청춘포차' 연극 장면. [사진 제공=극단 스토리팜]

그는 아직도 중학생 때 단체관람으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처음 봤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해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성찰할 수 있었던 것도 무대 연출을 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 같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픈 욕구가 컸다.

오 대표 소개로 부산문화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 등 문화예술 지원 매개 단체의 기업매칭 사업을 활용했다. 정 대표 도움으로 2015년 초연된 연극 '청춘포차'는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들 중심으로 구직난을 겪는 취업준비생,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 그림이 안 팔리는 화가 등 우리 주변에 흔한 소시민들을 등장시킨다. 1시간 남짓한 공연이라 연극이란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쉽게 몰입한다. 이 연극은 극단스토리팜의 대표 작품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무대에 올랐을 뿐 아니라 지난해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중구청 지원으로 웹드라마까지 제작돼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오 대표는 "처음에 정 대표가 연극을 올리는 비용 2000만원을 대겠다고 나섰을 때 믿기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후원이 나는 물론 배우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관객이 '이런 것도 연극이 되나'고 물어볼 정도로 생활밀착형 대사가 차별화 요소"라며 "코로나19로 연기됐지만 서울에서도 '청춘포차'를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단 스토리팜은 연극, 영화, 이야기가 있는 모든 것을 무대에 형상화해 이야기의 힘을 극대화시켜 보여주자는 취지로 작가, 연출자, 배우가 설립한 단체다. 오 대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인기 콘텐츠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며 "배우 등 연극인이 20~30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주변에 포기하는 후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자긍심 덕분인지 지원한 이후부터 사업이 술술 더 잘 풀렸다"고 밝혔다. 매출 30억원대일 때 지원을 시작했는데 7년 새 매출은 3배로 껑충 뛰고 직원도 40여 명에 달한다. 실제 서울 송파구 본점동에 있는 티스케이프 본사 입구에는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판식가 진열돼 직원들 예사심을 자극한다. 기술평가 우수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보다 눈에 잘 띈다.

티스케이프는 극단을 후원하면서 초기에는 본사와 협력사 직원들이 공연장을 찾았지만 일이 바쁘거나 겹쳐서 못 갈 경우 공연 DVD라도 챙겨보고 있다. 아울러 회사 지원 덕에 부산의 문화 소외계층도 초대권을 통해 연극 '청춘포차'를 볼 수 있었다. 부산의 문우당서점 등과 협력해 헌책을 기증하면 연극 관람 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열어 더 많은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오 대표 또한 극단 운영에 여유가 생겨 지역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곡 작법 강의도 할 수 있었다.

이현나 기자

(조회수 17,650)

2022년 01월 03일
20면 (인물)

"빛의 밝고 어두운 면 모두 다뤄야 한다"

구안나 조명박물관장 인터뷰

매년 이색 공모…올 '빛공해' 웹툰
KH필룩스와 건강한 빛 문화 노력
지난해엔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조명박물관은 매년 이색적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빛공해'를 주제로 사진/UCC공모전을 진행하는데, 조명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부각된다. 조명 기업(KH필룩스)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조명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쉽지 않지만, 이 곳에선 매년 이뤄지고 있다. 2022년에는 빛공해를 주제로 한 웹툰 공모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안나(사진) 조명박물관장은 3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조명박물관은 사라진 고유한 조명문화를 복원하고 재생시키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빛의 문화를 가꾸고자 한다"며 "여느 환경공해가 그렇듯 빛공해 역시 빛이 나빠서 생기는 공해가 아니라 빛을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공해"라고 말했다. 빛과 조명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으로서 빛공해를 줄여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다.

구 관장은 "지나친 인공조명의 남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수록 일상에서 적절하게 빛을 사용할 것이고, 산업적, 제도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빛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며 회사와 조명박물관은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빛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추구한다고 전했다.

조명박물관은 조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뿐 아니라 교육, 체험, 공연,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빛+예술 프로젝트'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주시 유일 등록 민간소극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상설 공연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KH필룩스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인증하는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조명박물관에 대한 KH필룩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구 관장은 "KH필룩스 직원들은 조명박물관을 '우리 박물관'이라고 한다"며, "때로는 직원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해 대체적으로 KH필룩스 직원들은 문화예술에 친숙한 편이다"고 말했다. 직원 가족 중에는 유치원 때 박물관 캠프에 참여했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주말 전시장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구 관장은 "직원들은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해 냉정한 비평가이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는 후원자이기도 하다"며 "박물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애증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응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명박물관은 올해 라이트아트 공모전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플랫폼을 진행하며, 7월에는 빛공해 주제 웹툰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다. 소극장에서는 4월부터 4개의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등 입인년을 프로그램 활성화의 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박도제 기자

(23.3×14.6)cm

한국경제
2022년 07월 27일
C03면 (문화)

스타벅스 매장 내 공연·작품 전시 … 청년 문화예술인들 지원



지난달 10일 스타벅스의 '문화가 없는 날' 행사 일환으로 스타벅스 춘천구봉산R점에서 예술인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스타벅스 제공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공연, 미술,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스타벅스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2017년 12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예술가들이 매장 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지역 문화예술 인재들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후원하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이 즐길 수 있는 아카펠라, 관현악, 재즈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7월 현재까지 더종로R점, 더해운대R점, 과천DT점 별빛 미술관, 대전둔산로점, 대수수성호수R점, 광주산정DT점, 여수해양공원점, 춘천구봉산R점, 더양평DTR점, 남이섬점 등 전국 주요 매장에서 총 56회 공연을 개최했다. 하반기 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공연 횟수와 시간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에는 청년 예술인재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벅스 과천DT점에 '별빛미술관'을 개관했다. 개관 이래 총 40회의 전시 및 공모전,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참여 인원은 1600여명에 달한다. 스타벅스는 별빛미술관에서 분기별로 청년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이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미술 수업도 진행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미술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전시 경험이 예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반면 청년 신진작가들은 그 기회가 부족하다"며 "작가들에게는 전시 경험을, 고객들에게는 스타벅스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2009년부터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문화재 및 독립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전통 문화 디자인을 담은 MD 상품(굿즈)을 개발해 판매수익금으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삼일절에는 무궁화 품종 중 하나인 '자단심계'를 표현한 텀블러와 머그를 선보였고 4월에는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와 매헌윤봉길월진회에 독립문화유산 보존 기금을 기탁했다.

2017년에는 대한제국 당시 유일한 해외 외교건물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복원과 보존비용으로 총 3억 원을 후원했고 2020년에 개설한 서울 중구 소공동 환구단점은 환구단, 황궁우 등 문화유산 건축물의 주요 요소를 매장에 녹인 것이 특징이다. 현경제 기자

(조 3-9 06:00)

환구단 역사성 되새겨… '박물관'이 된 카페

문화재, K메디치를 만나다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서울 환구단점은 사적 '환구단'과 인접한 역사성을 강조해 지난 2020년 매장 이름을 소공동점에서 환구단점으로 변경했다. 사진 제공=스타벅스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덕수궁을 방문해 문화재 관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스타벅스

서울시청 건너편 웨스틴조선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스타벅스 서울 환구단점은 도심 한복판에서 역사를 느끼게 하는 곳이다. 기와지붕에 한옥의 좌식 공간, 디딤돌·방석·창호 가림막 같은 인테리어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벽돌을 착착 쌓아 올린 매장 내 음료제조 탁자와 건물 기둥은 환구단의 황궁우 앞 석조삼문(石造三門)의 벽돌 모양을 따 왔다.

사적 '환구단'은 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고려 성종(983)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성을 가진다. 조선에서는 세조가 1457년에 설치했으나 한동안 명맥 끊겼던 환구단을 다시 세운 이는 고종이다. 1897년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진행했다. 일제가 1913년 호텔(지금의 웨스틴조선호텔)을 짓는다고 환구단 본단을 헐어 없앴고 현재 3층 팔각 건물인 황궁우만 남았다. 전통문화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스타벅스 환구단점 굿즈 진열대는 황궁우의 팔각지붕을 본땄다.

커피 마시는 곳에 불과할 수 있는 카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문화적 의미의 공간으로 바꾼 스타벅스의 사연은 2012년 경북 경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주 대릉원점과 경주 보문호수점은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의 좌식 매장을 갖췄고, 명소가 됐다. 고분 밀집지역이자 지역 전체가 문화보존지역인 황남동을 중심으로 문화재 관광지도를 자체 제작해 경주 시내 7개 매장 등에 배포했는데, 처음 만든 4000부가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1만부 를 추가 제작했다.

서울 도심 위치한 '환구단점'에
기와 지붕·한옥 좌식공간 구성
진열대 '황궁우 팔각지붕' 본따

굿즈 판매수익으로 문화재 투자
백범·만해 휘호 등 매입해 기증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도

한국 전통과 문화재에 대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애정은 유난스러워 보이지만 '진심'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9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붉의의 화마(火魔)로 국보 승례문을 잃은 직후였다.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시작했다. 고궁 청소와 화단 조성에 나섰다. 지금까지 약 3000명의 파트너들이 누적 1만 6000시간 동안 문화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고종이 외교사절단을 맞아 '가배차'(커피)를 마시던 덕수궁 정관헌에서 매년 봄·가을 여는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를 후원해 지난 10년간 2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커피와 고종으로 이어진 인연은 자연스럽게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를 좇게 했다.

백범 김구가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쓴 '광복조국(光復祖國)', 도산 안창호가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라고 한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 先自改造我窮)', 만해 한용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진리를 적은 '전대법륜(轉大法輪)' 등의 휘호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스타벅스가 매입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유물이다. 올해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달 9일부터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휘호 특별전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기증한 유묵 5점을 주축으로 한 전시였다.

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매년 3·1절과 광복절 등을 기념해 출시한 전통 문화 디자인 굿즈의 판매 수익금을 문화재 매입비용으로 대고 있다. 대한제국 유일의 해외 외교건물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복원에도 3억 원을 후원했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근처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을사늑약 이후 단돈 5달러에 강제매각됐다. 우리 정부가 다시 매입한 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고증·복원을 진행해, 빼앗긴지 108년 만인 2018년 5월 다시 태극기가 펄럭였다.

이 같은 공로로 스타벅스는 2019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에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조상인 미술전문기자

(23.8×21.6)cm

조세일보

2022년 07월 14일
(종합)

스타벅스, 매장 '문화공연' 지속 해 나간다

지난해 문체부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오는 15일, 춘천구봉산R점에서 2차례 공연



…올해 6월춘천구봉산R점에서 진행한 문화 공연장면 사진=스타벅스 제공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송호섭)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문화예술 인재의 매장 공연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

올 들어 6월부터 춘천구봉산R점, 더해운대R점 등에서 다양한 연주 공연을 시작했던 스타벅스는 올해 하반기 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공연 횟수와 시간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2017년 12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매장에 설치된 무대 시설에서 문화예술 인재들이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스타벅스는 공연 무대나 기회가 부족했던 아동과 청년 지역 문화예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후원하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이 어울릴 수 있는 아카펠라, 관현악, 재즈 등의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더종로R점, 더해운대R점, 과천DT점 별빛 미술관, 대전둔산로점, 대수수성호수R점, 광주산정DT점, 여수해양공원점, 춘천구봉산R점, 더양평DTR점, 남이섬점 등 전국 주요 매장에서 56회 공연을 개최했다.

오는 15일에는 57번째 공연 행사로 춘천구봉산R점에서 오후 1시와 오후 3 총 2회 공연을 진행한다. 싱어송라이터 듀오 '우주왕복선 싸이드미러'를 초청해 간단한 악기로 구성된 포크 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2018년에 스타벅스 과천DT점에 '별빛미술관'을 개관하고 그림 분야 문화예술 인재의 후원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스타벅스 '별빛미술관'은 청년 예술인재들에게는 작품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아동 대상으로 예술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개관 이래 총 40회의 전시 및 공모전, 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원은 160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스타벅스 파트너들을 위해서 '파트너 문화충전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의 공연 관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벅스 사회공헌팀 김지영 팀장은 스타벅스라는 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스타벅스 매장이 커피를 넘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신문
2022년 11월 30일
(경제)

종근당, 미래세대 희망 나눔... 온실가스 감축, 환아 위한 공연



종근당이 지난해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호프 와 '오페라 를 합쳐 만든 공연인 '키즈 호페라 를 선보이고 있다.종근당 제공종근당은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종근당은 2019년 12월 제약업계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업체 로서 매년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1 ESG 등급 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하기도 했다.

종근당은 또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을 이어 가고 있다. 2011년부터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 와 환아들을 위한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는 병원의 로비에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한 오페라 속 아리아와 영화, 뮤지컬 음악 등을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들려주는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다. 키즈 오페라는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 클래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어린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지난해 5월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신진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도 꾸준히 이어 가고 있다.

헬스인뉴스 www.healthinnews.co.kr

[ESG캠페인] 친환경 경영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 '종근당의 ESG행보'

김수연 기자 | 승인 2022.11.22 10:00

>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에너지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등 친환경 기업 추구**
> **메세나 통한 문화예술 지원, 네이버 해피빈 재단과 협력 통해 기부활동**

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은 제약기업의 본질인 신약기업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힘써왔다. 이는 사회와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라는 이장한 회장의 경영 철학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올해로 81주년을 맞은 종근당은 1941년 이종근 창업주가 서울 아현동에 궁본약방(宮本藥房)으로 창업하여 1946년 종근당약방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1956년 ㈜종근당제약사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 그동안 독일, 영국, 미국 등과 기술 제휴하여 170여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자사제품 20여 종을 수출해왔다. 일반인에게는 '종소리'광고로 친숙한 제약사이며 환경, 안전, 사회 전반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환경 부문

종근당은 친환경 경영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을 획득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제약업계 처음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국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천안공장은 종근당의 친환경 경영의 대표사례다. 종근당 천안공장 생산본부는 EHS(환경•보건•안전) 전담팀을 직속으로 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그에 대한 전략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1 ESG 등급'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했다.

또한 제품 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경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 특성상 필수자원인 용수와 원재료 관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폐기물, 수질 오염 물질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종근당 천안공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과 공정개선으로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낮음'으로 관리하고 건강진단 모니터링 설치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질병과 직업성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실제 종근당은 그룹사 차원에서 이에 대한 ESG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CKD ESG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도입과 글로벌 환경인증 획득 등을 통해 전반적인 EHS(환경•보건•안전) 부문을 강화했다.

한편 종근당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CKD 윤리규범을 제정,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CKD 윤리규범에는 임직원의 기본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공헌 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해 두고 있다. 2007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여 자사의 준법경영 정신을 강조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 실천: 오페라 희망콘서트 통해 문화예술 후원

종근당은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꾸준한 메세나 활동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일회성 후원이 아닌 장기적인 후원을 통한 따뜻한 ESG경영 행보가 돋보인다.



2022오페라희망이야기콘서트



2022오페라희망이야기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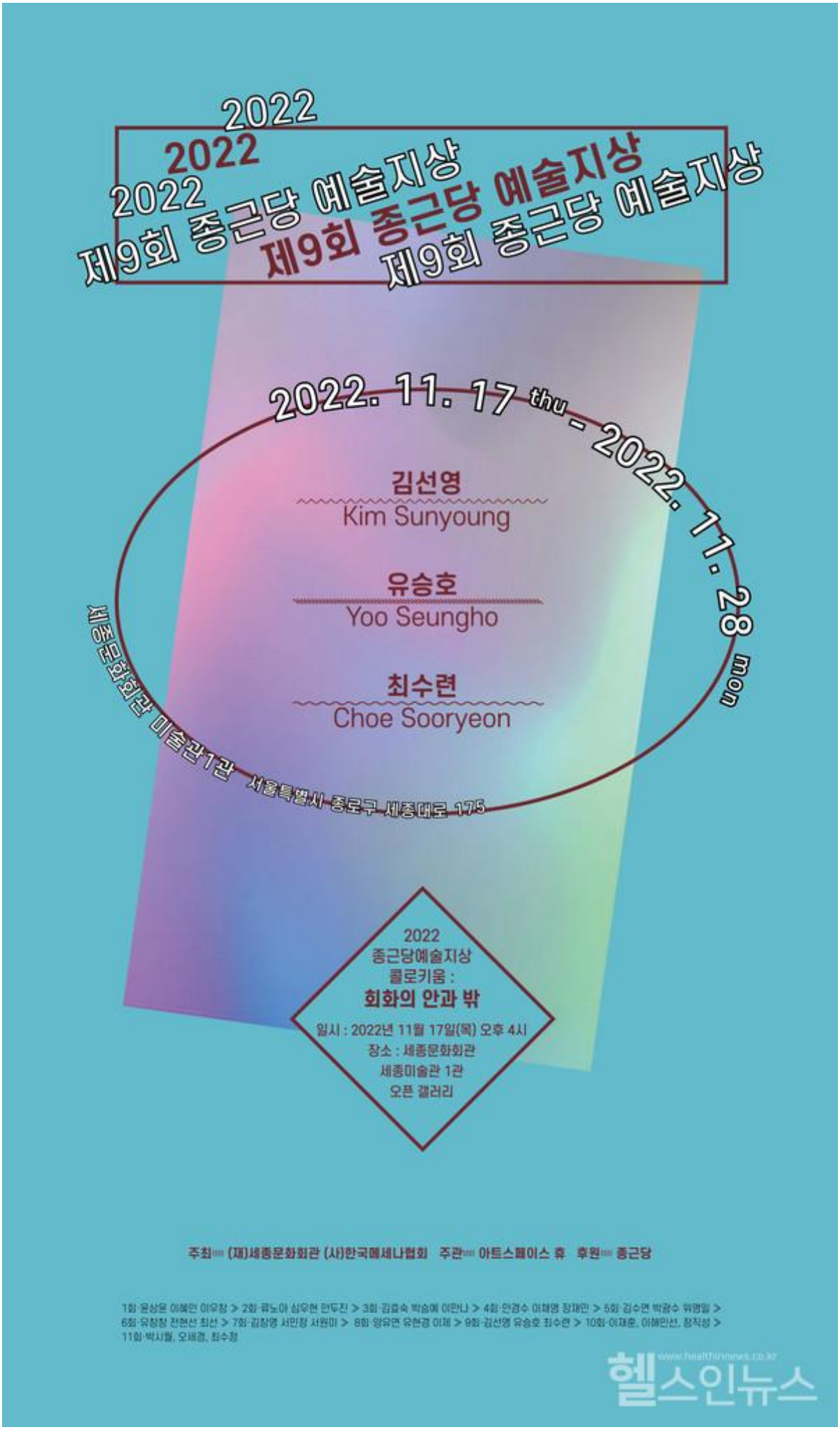
2011년부터는 투병중인 환우와 가족을 위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와 환우들을 위한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1회의 오페라 콘서트와 188회의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며 오페라를 통한 문화예술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는 병원의 로비에서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한 오페라 속 아리아와 영화 OST, 뮤지컬 등 친숙한 음악들을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들려주는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으며, 작년 11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비롯하여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을 선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키즈 오페라는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 클래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어린이들을 동심의 세계를 이끌어주는 공연이다. 작년 5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종근당 KID HOERA (HOPE+OPERA)'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전국의 문화소외지역 도서산간 학교 및 특수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종근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사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 통해 신진 미술작가 지원



제9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종근당은 2012년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 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제약업계 최초로 신인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국내 많은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작가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다.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는 매년 3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1000만원씩 3년간 총 3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며 전시회 개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에는 '종근당 예술지상 2022' 올해의 작가로 박시월, 오세경, 최수정 작가를 선발하고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에는 2020년 선정 작가인 유승호, 김선영, 최수련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 9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세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

종근당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매월 전 임직원들이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본사가 위치한 서대문구, 연구소가 위치한 용인, 생산 공장이 위치한 천안 지역의 복지 시설과 소외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사랑 나눔 헌혈캠페인

또한 매년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종근당 본사를 비롯한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헌혈캠페인을 전개, 헌혈증과 기부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네이버 해피빈재단과 협력을 통해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네이버 해피빈 기부 플랫폼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더블 기부'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벽보 만들기, 소아암 환우를 위한 마스크 만들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인 '파랑 마니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만간장학재단 최초로 무상으로 주거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종근당이 1973년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종근당 창업주 고촌 이종근 회장이 사재를 내 설립한 비영리 장학재으로 지난 49년간 9248명에게 658억원을 후원해왔다. 장학금 지원 사업 외에도 학술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학술 연구 지원과 해외 동포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장학재단이다.

올해도 종근당고촌재단은 장학급 지원사업을 이어갔다. 지난 2월 종근당 본사에서 진행된 '2022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장학금 대상자로 국내외 대학생 494명을 선발해서 시상했으며 선발된 장학생 중 지방출신 학생들에게는 무상기숙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종근당에서 지원하는 무상기숙사인 '종근당고촌학사'는 전•월세 난으로 주거문제를 겪는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해 설립한 민간 장학재단 최초의 주거지원시설이다.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 종근당고촌재단과 유엔연구사업소(UNOPS)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공동 제정한 고촌상은 세계 결핵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세계 혈액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6만5000달러의 상금을 후원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press@healthinnews.co.kr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

2022년 11월 28일
B8면 (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ESG' 통합등급 A 획득

종근당

종근당은 제약기업의 본질인 신약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종근당은 다양한 환경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을 획득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제약업계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업체'로서 매년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1 ESG 등급'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했다.

종근당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CKD 윤리규범을 제정해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CKD 윤리규범에는 임직원의 기본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공헌 책임을 명시해 두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예방함과 동시에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종근당은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꾸준한 메세나 활동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무병중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와 환아들을 위한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1회의 오페라 콘서트와 188회의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며 오페라를 통한 문화예술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는 병원의 로비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유명한 오페라 속 아리아와 영화 OST, 뮤지컬 등 친숙한 음악들을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들려주는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비롯해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체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종근당의 남다른 행보는 2012년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제약업계 최초로 신진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로도 이어졌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최근 3년간 국공립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바젤리 창작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은 만 45세 미만 평면회화 작가 3인에게 3년 간의 장기지원을 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33.2×12.4)cm

뉴제주일보

2022년 12월 13일
10면 (문화)

올해 마무리 짓는 예술인 '송년의 밤'

제주민예총, 17일 제1회 제주예술인의 밤 '연년 세세'

제주예총-제주메세나협회도 연말 교류·연대의 장 마련

연말을 맞아 도내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가 교류·연대하는 장이 잇따른다.

㈔제주민예총(이사장 김동현)과 탐라미술인협회(회장 강문석)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제주시 관덕로 복합문화공간 텐저린 맨션에서 제1회 제주예술인의 밤 '연년 세세'를 개최한다.

시각, 문학, 공연, 음악 등 도내 분야별 활동 예술인의 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자리다.

먼저 '미디어아트 : 4·3의 기록과 저항의 연대'와 '시·소리·몸짓 : 항쟁의 기억에 안부를 묻고 전하다'가 공개된다. 작품은 민중들이 써내려 간 저항의 역사와 저항의 기록 '봉인된 풍경(탐라미술인협회)'을 미디어아트로 공연예술과 접목해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시·소리·몸짓 : 항쟁의 기억에 안부를 묻고 전하다'는 제주해녀항쟁 90주년과 다랑쉬 유해발굴 30년 등 도내 항쟁사를 써 내린 사람들의 숨소리와 치열했던 삶에 안부를 묻고 희망을 전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주큰굿보존회 서순실 회장의 비념으로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며 막을 내린다. 온라인 링크(https://c11.kr/18bql)로 사전신청해야 입장 가능하다.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회장 김선영)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시 샬롬호텔 연회장에서 제주예총 60년사 출판기념회&제주예술인의 밤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특징은 시상 내용에 기존 대비 제주도지사상과 제주도의회장 상 등이 추가되면서 훈격이 높아졌다. 아울러 이날 제주예총의 60년사를 두 권의 책으로 엮어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인과 예술인 간 아름다운 동행도 계속된다. 제주메세나협회(회장 양문석)는 오는 22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부영호텔 컨벤션홀에서 2022 제주메세나 동행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도내 기업·기관 CEO 및 문화예술단체(예술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되는 이번 동행의 밤에서는 제주메세나대상 4개 부문에 대한 시상과 도내 50기업, 55개 예술단체 간 Arts & Business 결연식이 마련된다. 또 도내 5개 문화예술 팀이 동행의 밤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20.9*15.0)cm

"기업과 문화예술의 뜻깊은 동행 가치 실현"

김태이 기자
제주메세나협회, 제4회 2022 제주-기업의 메세나대상 제주문화관광부



제주메세나협회는 지난 22일 제주무형문화재전수관 우진홀에서 '2022 제주메세나 동행의 날 메세나 대상식'을 개최했다.

▲제주메세나협회(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관 '2022 제주메세나 동행의 날 메세나 대상식'이 지난 22일 제주무형문화재전수관 우진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지역 문화예술계 기여로 지업계 대상 메세나대상 시상식 축하무대 이어 기업인에 문화예술인이 교류할 도우미가 되는 'Arts & Business 감사의 밤'이 펼쳐졌다.
올해 제주메세나 대상은 농협금융 제주본부(본부장 문병철)가 선정됐다. 제주농협은 농산물판매장 주변을 활용 미술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온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Arts & Business상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송상엽대리 한일여객, 주식 모은 특별상은 제남주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명예 주은 특별상은 양성철 가수가 각각 수상했다.
양창식 협회장 "제주메세나 개념은 제주 기업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한 철저경영으로 성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계는 예술적 역량을 드높여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통해 문화융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서로 적응을 해고 있다"며 "기업과 문화예술의 뜻깊은 동행"이라며 제4회 대상식을 가지기 되었음을 감사 인사 드립니다"고 말했다.



▲제8회 고구려대전, 제2회 제이에스에이(주) 전국청소년사생대회 "개최
전북전주고등학교(교장 오영희) 장영농에서 '지방행정인턴쉽 교육원 제이에, 이번 도착과 고 학습으로 제시 22일 제8회 청주에서 전통문화에서에서 열린 2022 제천단기 청소년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
'건강'보다 '자신 학교에서 입습니다에 나온 최기철을 체험을 해 당한 '가능성 공기성도 경제 '국제행사 입장해 같은 참가를 한다.
'건강 가능을 경쟁 기술을 갖추었다. 함께은 수학과 수업에서 인는 강력을 관심 수 있도록 실제에 확산 에 건강 주장들에 사례를 주 있다이 된다를 한다.
이날 현충교고 건축과, 진사과 학점들은 구성은 '제주★청년리더에 대해당 공식적 식상 교학년 김태은 한국방송대학교 이상 교학년은 '제당 참석한 제주 손을 세계리더 한해수 제주★그도스피치 GOT 사업에 하이원으로 참석해설 했었다.
제주도다가 제주의 수에의 주제를 후대한 한라한식 제당을 위원해 수개의 아이템이에 참사하였습니다 높은 관심을 본였다.
당한 현충교는 '2020년부터 제주에게 참된 봉사로 유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다. 도적 도서에로 학생에 많은 참석 나타한 지원, 참된 자원봉사하기 등 많은 관즈 공부 등 다양한 고 등 프고였다 선택하고 있다.



▲제주도생활체육 가생체성가성성사업(제체가사)
제주체육과학도체육회(회장 부철가)는 지난 22일 체포교육도체주 조합에서 체육과 상가의 상생에서 생활, 선수, 지도자 등 50여명 참석 한마한 고문에 '2022 제주도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체육인의 등 '문사을 경감다. 이날 시동 준국체성에서 결제 세주에 교해당 14개, 선행당 13개, 개체당 11개를 기준 감이로 경주고등학교 반감지가사다' 체력대상을 받은 등 기록 무당에서 12명이에 달라 체육상을 받았다.



▲제주은행(은행장 기대호)은 22일 제주시 연동 본점에서 '2022년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은 지난 2020년 제주지역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은행에서 2022년 사회공헌에 관련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은행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부행장을 비롯해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제주은행은 2022년 사회공헌 추진 현황과 2023년 사회공헌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은행은 지난 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이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제주은행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제주은행(은행장 허두만)은 지난 22일 제주시 연동 본점에서 '2022년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나눔 문화를 선도 하고자 지난해 나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은행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부행장을 비롯해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제주은행은 2022년 사회공헌 추진 현황과 2023년 사회공헌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은행은 지난 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이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제주은행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제주은행(은행장 허두만)은 지난 22일 제주시 연동 본점에서 '2022년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나눔 문화를 선도 하고자 지난해 나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은행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부행장을 비롯해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제주은행은 2022년 사회공헌 추진 현황과 2023년 사회공헌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은행은 지난 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이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전북중앙신문
2022년 12월 06일
14면 (문화)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선정

기초단위 문화재단 최초 인증
내년까지 사업비 지원 혜택



전주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의 매개단체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이며, 기초단위 문화재단으로서는 최초 인증이다.

지난 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2022 문화예술 후원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의 매개단체 인증을 받은 전주문화재단과 예술후원 우수기관 7곳의 인증식이 진행됐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화예술 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선정된 전주문화재단은 2025년까지 후원매개 사업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의 지속적인 후원매개 활동이 대외적인 성과와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족한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는 '유연한 방식의 예술인 지원', '재단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 시민, 기관, 기업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후원 모금활동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14개 기업, 200여 명의 시민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의 후원을 모금하고 있으며, 6천만 원의 국고매칭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해 지역 내 예술후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 지역 예술인을 응원하는 '이팝 프렌즈 예술상' '국제라이온스협회 청년예술가 상'과, ESG 경영을 위한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탄소예술 프로젝트', 그리고 시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전주다복 음악회'까지 전방위적인 예술후원 매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예술후원에 대한 관심이 기초문화재단 최초의 매개단체 인증이라는 성과로 되돌아왔다"며 "매개단체로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예술후원이 꽃피운 전주의 문화예술이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17.1*17.2)cm

전북도민일보

2022년 12월 11일
(문화)

전주문화재단 '2022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에서 송년의 의미 나눠

김미진 기자



지난 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전주문화재단의'2022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에 참여한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 한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준 후원기업과 후원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9일 저녁 6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2022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행사를 열고 송년의 의미를 나눴다.

전주문화예술후원회(회장 나춘균) '이팝프렌즈'로 예술후원을 이어준 후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응원하는 예술인상 시상식, 팔복다복 음악회, 경품추첨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후원기업상에는 주식회사 정석케미칼과 주식회사 유니크플랜이, 후원인상에는 박신 후원자가 우범기 전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예술인상 수상자인 김학곤(시각), 서철원(문학), 하형래(공연), 김성혁(기획)씨도 창작지원금 300만 원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팝프렌즈 시상식과 함께 열린'팔복다복 음악회'에서는 소리신 앙상블이 클래식 성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레퍼토리를, JSM 뮤지컬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고니밴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캐롤 메들리와 커버곡 '걱정말아요 그대'와 자작곡'물 주세요'등을 들려주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선물했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의 예술후원을 통해 이러한 행사가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며, 훨씬 더 큰 꿈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후원을 넘어서 여기계신 분들이 문화예술을 구매해주셔야만 지역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고, 전주의 문화예술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백옥선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도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던 그 시기에 전주문화재단은 후원회를 발족하고 가치 있는 일을 고민했다"면서 "후원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모여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기초 문화재단 최초 인증이라는 성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도 전주의 예술 후원문화가 활성화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全羅日報
2022년 12월 08일
(문화)

[전북]'2022 이팝프렌즈 예술상' 김학곤·서철원·하형래·김성혁 수상 영예

임다연 기자

시상식 오는 9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서 열려



왼쪽부터 이팝프렌즈 예술인상 수상자 김학곤, 서철원, 하형래, 김성혁 씨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이 주최하고, 이팝프렌즈 후원회(회장 나춘균)가 주관하는 '2022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이팝프렌즈 예술상은 지난해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로 발족한 '이팝프렌즈'가 어려운 예술현장에서 창작을 이어나가는 예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지난달 전주시민과 예술단체로부터 수상자를 추천받아 이팝프렌즈 운영위원회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3명의 예술인과 1명의 기획자를 선정했다.

예술인상에는 김학곤(시각-중진), 서철원(문학-중진), 하형래(공연-유망), 김성혁(기획)씨가 선정됐다.

김학곤 화가는 원광대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 현재까지 17회의 개인전과 초대전에 출품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분과의 이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철원 작가는 2013년 계간 '문예연구'의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제8회 불꽃문학상과 제12회 혼불학술상을 수상했다. 제9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하며 지역 문단에 반향을 불러왔고, 올해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주의 삶을 잘 보여주는 장편소설 '해월'을 출판했다.

하형래 배우는 극단 무대지기 입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연극단체와 공연작품에 배우와 작가, 기획자까지 참여하며 연극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전문기량을 펼쳐왔다. '제6회 전주연극으로 통하다' 사업을 비롯한 전주연극협회의 다양한 사업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혁 기획자는 지난 2012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자스민 예술단의 총괄운영을 시작으로 전주시 청년예술인 100여 명이 참여한 '청년예술시.[점]'을 기획했다. 전주 내 문화예술기획자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며 탁월한 문화예술 기획력을 바탕으로 예술인뿐 아니라 지역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후원기업상에는 주식회사 정석케미칼과 주식회사 유니크플랜이, 후원인상에는 박 신 후원자가 우범기 전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6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진행되는 '2022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1부로 예정돼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식과 더불어 소리신 앙상블, JSM 뮤지컬, 고니밴드가 참여하는 팔복다복음악회, 경품추첨 행사 등이 펼쳐진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이팝프렌즈 후원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기초 문화재단 최초 인증'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며 "후원인 여러분이 꽃피워준 예술후원을 후원인의 밤 행사를 통해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는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미래전략팀(063-211-9276)을 통해 가능하다./임다연 기자·idy1019

임다연 기자 idy1019@naver.com

뉴스핌
2022년 11월 29일
(연예/오락)

'남에게 보여질 나'를 꾸미느라 지친 현대인을 위한 전시 'Reflection'

[서울=뉴스핌] 초윤준 기자 =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매체는 늘었지만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 볼 시간은 없는 나날이다. 혹시 '남에게 보여질 나'를 꾸미느라 지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Reflection :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 전시회에서 '내가 바라본 나'를 돌려주고, 타인이 열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실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어떨까?

《Reflection :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은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참여형 설치 작품의 결과물을 색다른 시선으로 오마주한 결과전시다.

전시를 관람하며 나를 마주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연결될 수 있는 시간, 오롯한 나 자신을 만날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글로벌 의로기업 몰림푸스 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과 함께 프로젝트 '감정문답'의 결과전시 <Reflection :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을 29일(화)부터 내달 10일(토)까지 용산구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에서 개최한다.

서울문화재단과 몰림푸스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기획해왔다. 지난 9월 새로 시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 '감정문답'은 예술을 매개로 회복과 연결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총 500여 명의 시민이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 전시실에 설치된 참여형 기기에서 스스로를 마주하고 기기가 건넨 질문에 손글씨로 답했다.



<Reflection :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은 '감정문답'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만든 결과전시다. 본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은 타인의 솔직한 답변들을 보며 공감하고 또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참여형 설치 작품을 기획한 설은아 작가는 국내 뽐뻬트 1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한국 최초로 칸 국제광고제에서 사이버 부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통의 부재를 주제로 한 '세상의 끝과 무재촌 통화' 전시 퍼포먼스 물론은 세계 3대 단면 영화제인 탐폐에 국제 단편 경화제에서 국제 경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과 몰림푸스한국의 제휴사업으로 한국메세나협회의 '2022 지역 특성화 예술펀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10일(토)까지 감정서가 운영시간 중 누구나 부로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과 감정서가 인스타그램(@gamjungseog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감정서가'는 도시의 삶 속에서 잊고 살기 쉬운 '감정'을 키워드로 2021년 3월부터 문영정 예술교육공간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놓치기 쉬운 내면을 되돌아보고자 서가에 비치된 감정에 관한 문장을 읽고 감정카드에 자신이 직접 글씨로 옮겨 적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digibobcol@newspim.com

무등일보 2022년 12월 02일 (금) 1면

영무토건·오성정보통신,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 인증의 제허
영무토건, 신규 인증 위상에 올라
오성정보통신, 올해 다시 인증 영예



박성복 영무토건 대표.

㈜영무토건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영무토건은 신규 인증을, 오성정보통신은 재인증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에 2일 서울 세빛섬 홍반딤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체부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8곳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50곳을 인증했다.

신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는 ▲영무토건 ▲군동바이오 ▲주식회사 동성케미컬 ▲㈜신세계엔앤씨 ▲송소기업은행 ▲지제스씨푸 주식회사 ▲에코원건설산업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우수 활동을 통한 공로로 인증받았다.

영무토건은 '라이프 예술 아트 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삶이 예술이 되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특별문화공간 '갤럭시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심층적 복세니 문화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을 기여했다. 특히 '갤럭시 ART 콘서트' 개최 및 '갤럭시 뜨거도' 운영 지원, 문화취약층아리 갤럭시 찾아 세시인스 제공, 지역작가 작품 사기 문화, 협작 지원급 지우 문화 콘텐 능 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은 곳은 ▲오성정보통신 ▲화연지문세라움정스 ▲주식회사 제이씨 ▲주식회사 우스크 ▲중앙약품㈜ ▲대성산업㈜ 그린 ▲에시아나항공㈜ ▲한진케미칼㈜ ▲주식회사 한국씨 ▲[redacted]㈜ ▲주식회사 신세계 ▲현대백화점㈜ ▲한호정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등 46곳이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3년마다 해심사를 통인 구조다. 오성정보통신은 지난 2019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올해 다시 인증을 받아냈다.



이한선 오성정보통신 대표.

오성정보통신은 영상음향 및 영상음악 #방송·긴급구호시스템 등 정보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회사다. 2015년 2월 회사 경영지원팀 내 문화예술 지원단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싶은 해 4명부터 후원 연주단체인 '에리제' 합창단 '나크 씨 앙계 (사)한국예술시설의이 해창한도 우리사로 인무단체의 활동해 적극적인 후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노고를 인정받아 제46·47회에서 아트 & 비즈니스상을 수상했고 2019년부터는 (사)한국예술시설의이 회원사로 가입했다. 또 예산 '시작한글 위한 나눔음악회'등 광주진남에서 개최해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을 통한 사회공헌에 힘썼다.

박성복 영무토건 대표는 "경주기 예정이더고하는데 활성화 뒤지 않고 있다. 광주에 산고등은 기업의 대표로서, 나무의 협력자자는 회적로 음주 내인한, 영원, 지원등에 감넷과를 실심에게 했다"며 "작가들과 음악인들을 우리에게 와 오늘과 같은 큰 영광을 준게 됐다. 오늘이 첫걸이 씹주 기업인들에게 기독계기 되어 음주가 이문에 없일는 해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추긴을 당했다.

이한선 오성정보통신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술이고, 예술을 이끄는 것은 후원이라고 생각한다. 캠에서 대중집합 위해 노력하는 '이키꾸미 열정 파나눈'에 친교한 다정과 다마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 올 수 있었다. 보한 문화예술위원회, 예부나 협력, 회사 직원들과 정성 껴러와 동기를 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무모을 버려거나 이런인센트 모기 일다면 주수은 후원하지고 할수 없을 것이다. 넓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년 문화예술 후원 문화에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이룩년 다복적 기업 동을 심사해 문화예술 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문화예술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동을 촉진하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비롯해 KBS 각단근별 광고(1.5%) 우대 배정(후소·중간기업 대상), 문체부 '여기는특기업 인증제' 지원사 기선회 부여, '예술인복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광주국기자 rasx429m@tiscali.com

대한경제
2022년 12월 28일
(경제)

[ESG 특집] TG영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이야기'

아트경영 • 메세나 선두주자…다채로운 문화 • 예술 지원으로 눈길



박현택 TG영무 회장(앞줄 왼쪽 5번째)과 임직원들이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G영무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TG영무(영무토건, 홍진건설 • 대표 박현택)는 창립과 함께 '예다움봉사단'을 창단해 전 임직원이 연간 3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본사 소재 광주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와 기부, 물품 • 차량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등 교육시설에도 장학금 및 시설지원 등을 통해 나눔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택 등 견본주택을 개관하면 화환대신 성금을 받고, 그에 상당한 금액만큼을 회사도 출연해 해당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앞서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 대유행과 광주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재난 • 재난 시에도 다양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TG영무의 슬로건은 'LIFE IS ART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으로, 메세나에도 선두주자로 꼽힌다.

사옥 1층을 통째로 갤러리로 운영 중이고, 박현택 회장 개인자산을 출연해 광주에 김냇과1 • 2 • 3들 개관해 지역작가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는 '나주 예술의전당'을 설치해 신진작가 발굴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내 뮤지션을 선발해 창단한 '김냇과 트리오'들 3기까지 배출하고 있다.

또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는 메인스폰서로 참여했고, 견본주택마다 예술작품 전시회(초대전)와 하우스페어를 열고 있다.

TG영무가 건설 • 운영 중인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은 메세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다채로운 그래피티와 키넥틱, 10M 높이의 초대형 유화작품를 비롯, 총 258실 전 객실에서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내년 1월에는 대구 봉덕동에 10명의 지역예술가에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김냇과 레지던시를 개관할 예정이다.

박현택 회장은 이런 메세나 활동에 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메세나 대상에서, 개인부분 대상인 '메세나인상'을 수상했고, TG영무는 '2022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도 받았다.

박 회장은 "올해 2개의 예술인증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문화예술사업 후원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며 "아트경영에 ESG경영을 더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비즈&스포츠월드

2022년 12월 28일
(보건/의료)

안국약품,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재인증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왼쪽)과 안국약품 김선엽 상무(오른쪽). 사진=안국약품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안국약품이 문화예술계 중 미술신진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재인증'을 세 번 연이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분야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에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후원 성과를 일궈 낸 기업과 단체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안국약품은 2016년 처음으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2019년 재인증에 이어 매 3년 인증이 만료되는 올해 재인증을 받았다. 안국약품은 단기간에 쉽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미술계의 특성상 지원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꾸준한 미술신진작가 지원과 활동기반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문화 소외지역 주민이 수준 높은 미술문화를 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안국문화재단과 AG갤러리에 대한 후원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2021년 처음 시상한 국내 주요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국내 우수작가에게 수여하는 '안국미술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홍보지원, 상담지원, 작가컨설팅 등 비재무적인 지원활동과 재무적 지원활동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inji@segye.com

지속가능경제 전문 미디어
페어뉴스

서울문화재단-신세계L&B, 공예작가 작품 상품화 개발 지원한다

예술작품의 상품화에서 유통까지, 예술지원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

고동언 기자 john@fairnews.co.kr

등록 2022.11.11 12:57:05

[페어뉴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주)신세계L&B(대표이사 우창균)와 함께 "공예·디자인작가 작품 상품화 개발 지원" 공모사업의 결과 전시인 <원앤모어(One and More)_선물하고 싶은 공예>를 오는 23일(수)부터 27일(일)까지 성수동 코사이어티 서울숲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문화재단과 주류전문유통기업 (주)신세계L&B가 제휴하여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결과로 공예와 디자인분야 예술작품을 상품개발과 유통에서 판매까지 적극 연계하여 창작지원금 지급을 넘어 예술인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2019년 처음 시작한 본 사업의 주제는 예술인이 만든 '테이블웨어(부엌과 식탁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나 술잔 등을 의미)'로, 주류 유통을 업(業)으로 하는 제휴기업과 결을 맞추어 향후 판매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정했다. 첫 프로젝트 이후 현재까지 신당창작아케이드 공예 예술인 42명의 작품 100여점이 상품화되었으며, 신세계백화점 등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어 작가에게 판매 수익이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화와 유통이 어려운 예술가의 작품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받아 후원 기업인 신세계L&B는 '2021년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등 문화예술분야 사회공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2021년부터는 친환경 소재 상품개발을 추가하여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의 ESG경영실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한지의 주원료인 닥줄기를 활용하여 옻칠을 입힌 전보경의 '고즈넉이',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려지는 포장지가 아닌 직조공예로 만든 조예린의 '와인슬리브백', 보관과 장식의 기능을 모두 가진 친환경 종이 재질의 와인 패키지인 전나형의 '주신과의 동행' 등이 친환경 소재 작품을 대거 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기업제휴를 통해 예술지원과 예술상품 제작, 전시를 통한 시민향유와 판매, 유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제휴하여 예술분야 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앤모어(One and More)_선물하고 싶은 공예>는 오는 23일(수)부터 27일(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별도의 휴관일 없이 진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가능하며 현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코로나에서 회

복되어 새로 맞이하는 일상을 위해 소중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공예작품을 찾아본다면 더욱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www.s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JoongAng

2022년 03월 30일
(종합)

[issue&]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26년간 100억원의 희망장학금 지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30여개 문화예술 단체에 100억원 넘는 지원을 해왔다. 사진은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의 공연 모습. [사진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돕는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을 후원하는 신세계의 희망장학금이 지난 26년간 100억원에 달한다.

그간 후원금은 신세계백화점의 중소기업 이하 협력회사와 인근 소상공인, 장애 및 난치병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지역 인재들에게 돌아갔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더불어 관공서 추천 학생, 전통시장 상인회 자녀 등 효행과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이 수혜 대상이다. 미혼모·아동·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 보육원을 선정해 장학금·교복·교육용PC도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자녀도 선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서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상생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올해 희망장학금은 다음 달부터 대구신세계, 센텀시티점, 광주신세계, 김해점, 마산점,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에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ESG추진사무국 이원호 담당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효행과 선행으로 귀감이 되는 청소년의 꿈을 이뤄 주기 위해 26년간 장학금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30여개 문화예술 단체에 100억 이상 지원

신세계는 그동안 다양한 상생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돕는 것은 물론 인재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도 해왔다. 2012년 후원 협약을 맺은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을 비롯해 30여개 문화예술 단체에 10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해왔다. 2003년 브라스 앙상블로 시작한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전문 연주 단체로 급여가 지급되는 정단원 체제다. 신세계와 한빛예술단은 2012년 3월 1사 1사회적기업 후원 협약을 맺고 파트너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결연 커플로 참여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시각장애인 연주자의 연주력 향상을 위해 공간과 강의 지원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대구 오페라하우스, 연세대학교 백양홀 등의 다양한 무대에서 기획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의 문화홀 순회 공연을 통해 새로운 콘텐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미국의 LA필하모닉과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의 공연에 예술의전당 문화햇살사업 단체 및 음악 전공생을 초청해 회제를 모았다.

신세계백화점의 메세나 활동은 정부의 인정도 받았다. 신세계는 문화 수혜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공로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

지역 신진 예술 작가의 등용문 역할도

신세계백화점은 지역 작가를 지원하고 판로를 열어주는 상생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 2020년 여름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지역 미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 전시를 진행했다. 아트페어 '동행, 예술가와 함께'를 통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예술가와 지역 화랑 돕기에 나섰다. 부산 센텀시티, 광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대표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를 도왔다.

지역 신진 예술 작가의 등용문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역량 있는 작가의 발굴과 창작 지원을 통해 지역 미술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공모전이다. 지난 20년간 86명의 작가가 광주신세계미술제를 통해 등용됐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 '대구영아티스트', 부산의 '영아티스트페스티벌' 등은 지역 신진 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주고 백화점 고객에게는 일상에서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이데일리

2022년 10월 25일
(문화)

국립심포니-세아이운형문화재단, 지휘자 육성 위한 MOU

- 차세대 지휘자 위해 총 1500만원 지원 협력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국립심포니)와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25일 서울 마포구 세아타워에서 한국 차세대 지휘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정숙(왼쪽)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박의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 (사진=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는 KNSO국제지휘콩쿠르, KNSO 지휘자 워크숍을 통해 한국 지휘자 발굴 및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올해부터 2년간 지휘자 워크숍에 선정된 우수 지휘자와 2024 KNSO국제지휘콩쿠르 특별상 수상자에게 후원금 총 15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지휘콩쿠르 수상자 중 한국인이 있을 경우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인재'로 선정해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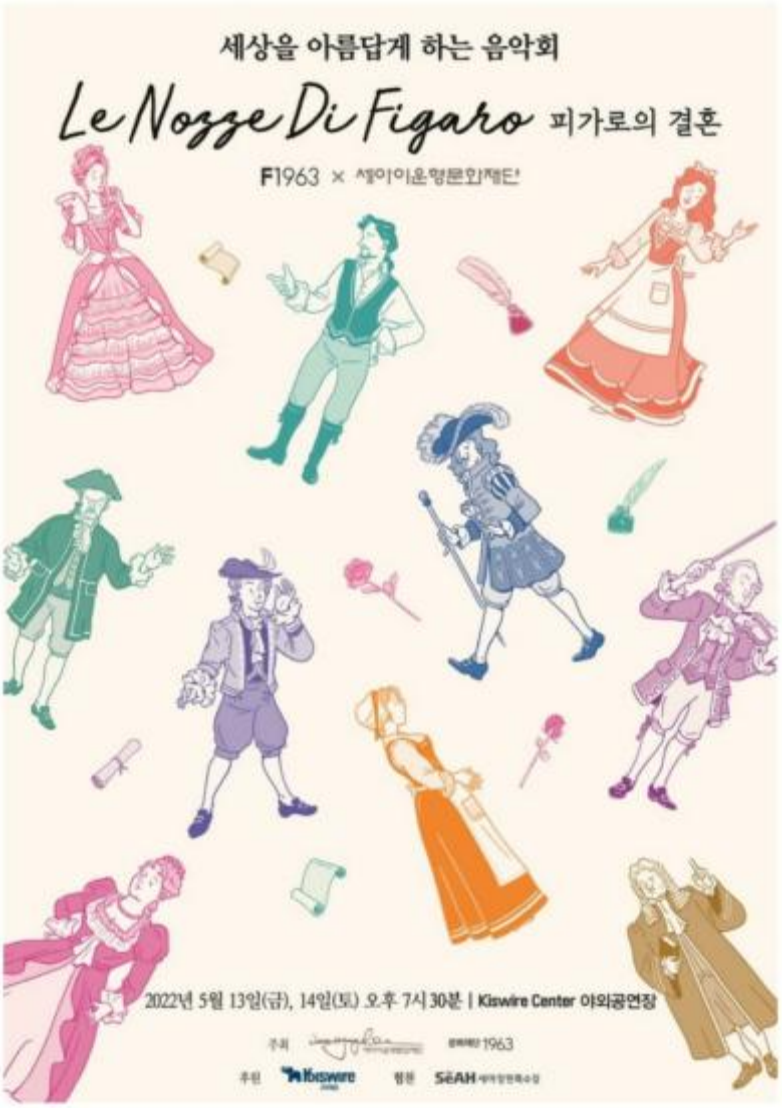
최정숙 국립심포니 대표이사는 "오늘날 K컬처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꾸준한 문화예술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발점으로 한국 지휘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의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립심포니와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력 있는 한국 지휘자를 발굴하여 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NEWSIS
2022년 05월 11일
(종합)

세아그룹, 고려제강과 손잡고 부산서 음악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양사 두 재단이 함께 선보이는 최초의 지역 메세나 활동
13~14일 부산 키스와이어 센터서 오페라 '피가로의결혼' 공연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세아그룹과 고려제강이 지역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세아그룹과 고려제강은 두 기업 산하 문화재단 '세아이운형문화재단 과 '문화재단1963 이 공동 주최해 부산 지역시민들을 위한 '2022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악회는 오는 13 14일 오후 7시30분 부산 키스와이어 센터(KISWIRE Center)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과 '문화재단 1963 이 공동 주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이 협찬, 고려제강 이 후원한다.

이번 공연은 철강기업들이 협력한 최초의 지역사회 대상 메세나 활동이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은 생전 오페라를 아끼고 후원했던 고(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의 뜻을 담아 201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오페라 후원 재단이다. 오페라 인재 후원, 음악회 개최, 학술연구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오페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문화재단1963'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설립된 재단이다. 예술전문도서관인 'F1963도서관 운영, 클래식 공연 및 기획 전시 등을 통해 부산 지역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두 전문 문화재단이 함께 선보이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음악회는 신시내티 음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조정현이 지휘를, 다수의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호평을 받은 윤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아울러 국내 대표적인 성악가인 바리톤 김진추(피가로), 소프라노 이세희(수잔나), 바리톤 강형규(알마비바 백작), 소프라노 윤정난(백작부인) 등이 출연하며 코리아쿱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재단법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박의숙 이사장은 "'문화재단1963'과 뜻을 모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를 공동 주최하게 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 봄날 아름다운 음악으로 부산 시민분들을 찾아뵐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 본 음악회가 코로나19로 지쳐계신 시민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매일일보

2022년 08월 18일
(경제)

세계청소년문화재단, '2022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작품 전시회 개최

나기호 기자



(앞줄 왼쪽 다섯 번째) 강영중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이 '2022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작품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들 및 세계청소년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교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오는 23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2022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은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조형예술 분야의 신예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후원 사업이다.

올해는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를 포함 총 11명을 최종 선발해, 어시스턴트 작가 11명과 함께 지난 7월 18일부터 18일간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크라운해태 조각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최종 완성된 작품들은 오는 23일까지 아리아트센터에 전시되며 조형예술에 관심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유치해 참여작가에게 더 큰 영예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주식회사 대현의 신현균 회장과 포시즌의 이상안 회장으로부터 과여상과 청강상을 유치하여 외부 장학금도 함께 수여한다.

세계청소년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매개단체로 인증돼 올해는 문화예술후원회의 후원으로 신예작가와 후원인 간 매개역할을 수행했다"며 "순수예술분야 중 비인기 종목인 조형예술분야에도 신예 작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 유치와 조형예술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사업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래일보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ESG 경영 제안 설명회 개최

문화예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신정일 기자 news@onculture.co.kr

등록 2022.06.29 08:44:01



▲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ESG 경영 제안 설명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제안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를 7월 8일(금) 오후 3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으로 확장 중인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서 한 발 나아가 문화예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업·기관의 ESG와 CSR (사회적 책임)을 맡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이 협력하는 방안들을 △세대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미래 기술 등 영역별로 제안한다.

또한 기업의 ESG 컨설팅을 비롯해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노소셜랩 김민지 이사의 강연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다양성'이 진행된다. 관심 있는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성민제와 최진배로 이뤄진 국내 유일 더블베이스 듀오 '콘트라스투(KONTRAS2)'의 공연도 펼쳐진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시가 2004년 설립한 문화예술 전문기관이다.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로 공식 인증됐다. 현재까지 60여 개 기업과 제휴사업을 펼쳐 왔으며, 서울시 주최 민관협력 우수기업 서울시장 표창(신세계 L&B, 효성, GS홈쇼핑, 올림푸스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올해의 예술후원인 대상 중견/중소기업 부문(포르쉐코리아), 프론티어 부문(신한카드), 한국메세나협회 주최 한국메세나대회 대상(아모레퍼시픽), 서울시복지재단 주최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서울시장상(조아제약)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ESG 경영 제안 설명회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매일
2022년 03월 30일
02면 (종합)

충남도, 제3호 문화예술 후원기업 '벽산엔지니어링'

플랜트 및 인프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이 '충남 문화예술 후원 릴레이' 제3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29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송한승 벽산엔지니어링 부사장,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제3호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충남 문화예술 후원 릴레이는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기업·단체 등 민간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 활동을 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충남 2030 문화비전' 기반 사업이다. 도는 기탁받은 후원금을 충남문화재단에 전달해 야외 공간 공공조형물 설치, 재활용 예술품 제작 등 도내 지역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벽산1% 나눔매칭운동'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벽산1%나눔매칭운동은 지난 2013년부터 벽산엔지니어링 임직원이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활동기금을 조성, 이를 문화예술 후원 및 소외계층 지원, 지역 원도심 내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또 벽산엔지니어링은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해 매년 음악·미술·연극 부문 벽산예술상을 시상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장래성 있는 영재 발굴·양성 활동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업이다.

도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매달 문화예술 후원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며, 개인·기업이 손쉽게 관련 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후원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오천수 기자

(17.5*7.8)cm

매일경제

2022년 01월 12일
(총합)

정부지원 끊겨 낙담하던 추상화가...다시 붓 들게 한 '키다리 아저씨'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안상훈 작가 인연

메세나協 가교, 3년 장기후원
安 "화가 삶 보릿고개에 단비"
金 "K미술, 중견작가에 달려"

2022 신년기획 이젠 선진국이다 /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왼쪽)이 미술 소장품들을 전시한 서울 구로동 사옥에서 화가 안상훈과 함께 웃고 있다. [김호영 기자] 추상화가 안상훈(46)은 지난해 말 정부 지원이 끊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지원 사업인 '예비 전속작가제'를 통해 후원을 받아왔는데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화랑이 전속작가를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3년 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화랑이 매년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홍보비와 전시 기회도 제공한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소속 화랑인 갤러리조선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벽산엔지니어링이 2022년부터 3년간 연간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안 작가에게 후원하기로 했다는 것. 기업과 예술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메세나협회가 안 작가와 벽산엔지니어링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예술 애호가로 소문난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75)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현대미술관회 회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문화예술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키다리 아저씨'다. 소장한 미술품이 1000여 점에 이르는 재계 대표 컬렉터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 구로동 벽산엔지니어링 사옥에서 만난 김 회장과 안 작가의 표정이 밝았다. 김 회장은 "3년 전 내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중견 화랑들과 함께 전속작가제를 시작했다"며 "전도유망한 안 작가가 후원기간 3년을 다 채웠다고 '이젠 안녕' 할 순 없어 한국메세나협회 '1기업 1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후원 배경을 밝혔다.

안 작가는 "가뭄에 단비 같은 벽산엔지니어링 후원으로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3년간 후원을 받을 수 있어 작품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독일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2017년 귀국했다. 모친의 병세가 위중한 가운데 인천문화재단의 입주작가 공모에 선발되면서 귀국을 결심했다.

안 작가는 "지원 기간 1년이 끝나기 전 새로운 공모에 참여해 작업공간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며 "작품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3년간 지원해주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메세나협회처럼 작업실도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이 필요하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안 작가는 "작가 입장에서 40.50대는 일종의 보릿고개다. 20.30대에는 참가할 수 있는 이런저런 공모전이 많지만 마흔다섯이 넘어가면 나이 제한에 걸려서 공모전 참가가 불가능하다. 물론 '그 나이 됐으면 알아서 먹고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 회장도 안 작가의 말에 동의했다. "신진작가 후원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안 작가처럼 작품세계를 확립한 미술가,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미술이 가야 할 방향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후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NEWSIS
2022년 08월 17일
(종합)

문체부-예술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기관 선정한다

기사내용 요약
9월23일까지 접수…인증마크.출입국우대카드 등 혜택



문체부-예술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포스터.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는 11월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기업을 선정, 인증한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선정 대상은 모범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후원 유치 및 매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개 단체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증마크 출입국 우대카드 중소.중견기업 대상 케이비(KB)국민은행 금리우대 문화예술협력 행사초청 언론홍보 문화체험 기회 제공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및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 우수 매개 단체는 사업운영비도 지원받는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과 매개 단체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과 단체는 다음달 23일까지 문예위 문화예술후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문예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아트_트리' 채널을 추가하면 1:1 채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후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지닌 가치와 사회적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NEWSIS
2022년 12월 02일
(종합)

신세계앨앤비·지에스파워 등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서울=뉴시스】 문체부 세종시 청사. 2017.10.0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신세계앨앤비·지에스파워·굿볼아카데미·동성케미컬·영무토건·중소기업은행·해양환경공단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각각 인증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1곳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7곳을 새롭게 인증한다고 2일 밝혔다. 인증식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은 모범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있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인증한 8곳을 포함해 법률이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6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새롭게 선정된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은 체계적인 후원 매개 프로그램을 통한 후원 유치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굿볼아카데미·동성케미컬·신세계앨앤비·영무토건·중소기업은행·지에스파워·해양환경공단 등 7곳은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와 우수기관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를 위한 기획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은 솔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금리(1.5%) 우대 혜택(중소·중견기업 대상), 문체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가산점 부여,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기업이 협력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 관련 지원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뉴스핌

2022년 12월 02일
(연예/오락)

문체부·예술위, 문화예술후원 단체·우수기관 8곳 신규 인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함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1곳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7곳을 새롭게 인증한다. 인증식은 2일 오후 5시 서울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은 모범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있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인증한 8곳을 포함해 법률이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곳이 인증을 받았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올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로 새롭게 선정된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은 체계적인 후원 매개 프로그램을 통한 후원 유치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굿볼아카데미 ▲주식회사 동성케미컬 ▲㈜신세계앨앤비 ▲㈜영무토건 ▲중소기업은행 ▲지에스파워 주식회사 ▲해양환경공단 등 7곳은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쳐 신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는 문화예술후원 매개를 위한 기획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금리(1.5%) 우대 혜택(중소·중견기업 대상), 문체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기업이 협력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한 지원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경인일보
2022년 05월 02일
03면 (종합)

사회공헌·마케팅 전략…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해야

경인 WID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기업들, 63.2·27.9%순 이유로 꼽아
코로나로 지원규모 2020년 14.6%↓
佛 메세나법 도입후 총액 3배 늘어
우수기업 발굴 예우 등 노력도 필요

메세나의 지원 형태는 다양하다. 뮤지엄이나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의 저변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나 축제·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에 후원하기도 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인 '문화이음' 사업이 있다. '문화이음'은 기업의 메세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05명이 가입하고 약 62억원이 모금됐다. 이 사업을 통해 뮤지엄 전시는 물론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교구·도료 등의 지원, 갤러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던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규모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크게 줄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기업출연 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천778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14.6% 감소했다. 협회는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한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며 활동이 줄었고, 그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메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사회공헌 전략 차원의 지원(6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마케팅전략(27.9%), 경영전략(8.9%) 순으로 나타났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전시관들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작가분들 역시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도료·컬러기업이라는 특성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메세나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상생 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소통하게 하고, 문화를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위축되어 있는 메세나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는 물론,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획기적인 세제 지원책이 담긴 메세나법을 도입한 이후 기업의 예술 지원금 총액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세제 인센티브와 같은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예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 예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메세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템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후원을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잘 짚어낸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17.8*17.6)cm

한국경제

2022년 12월 28일
31면 (인물)

환자·노약자 위해 … '심전도 매트리스' 만든 27년 침대 전문가

Zoom In 김인호 럭스나인 대표



호흡·체온·산소포화도·맥박측정
내년 1월 美 CES 전시회에 출품
"어려운 이웃 돕는 게 기뻐 창업"
매년 영업이익 6.1% 사회에 기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인이 있다. 최근 9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6.1%를 사회에 기부한 럭스나인의 김인호 대표(사진)다. 럭스나인은 침대 매트리스 전문 제조·판매 회사다. 김 대표는 1996년부터 미국 최대 침대회사인 씰리의 한국 대표를 16년간 맡은 매트리스 제조·판매 전문가로 통한다.

나름 성공적인 삶을 꾸려가던 그가 돌연 창업에 나선 것은 2011년. 건강관리를 위해 틈틈이 참여한 명상 프로그램이 계기였다. 27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김 대표는 "난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화두를 놓고 며칠간 깊은 명상에 잠기다 보니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영혼이 기쁘다는 걸 깨달았다"며 "남을 도우려면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럭스나인의 창업 슬로건도 '세상을 이롭게'다. 럭스나인의 사회봉사 활동은 세밑이 따로 없다. 겨울나기에 힘겨운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쌀 기부는 물론 YWCA 후원, 각종 장학금 수여, 미얀마 어린이 돕기, 우크라이나 돕기, 미술 전시회 후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럭스나인은 이른바 '라텍스 침대'로 잘 알려진 토퍼 매트리스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다. 글로벌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토퍼 매트리스 부문 11년 연속 판매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은 연 120억원 수준이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김 대표의 또 다른 소망은 제품을 통한 기여다. 그는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지내는 공간이 매트리스"라며 "인류의 건강에 공헌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과학자들과 머리를 맞대 제3의 의료진이 될 수 있는 첨단 매트리스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럭스나인이 최근 개발을 마친 매트리스는 흉부 패치와 매트리스를 통해 누워 쉬는 동안 호흡,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심전도, 수면 상태 및 낙상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제품(바디로그·Bodylog)이다.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도 바디로그에 누워 있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매트리스에 이런 기능을 접목한 건 세계 최초"라며 "사업으로 돈을 벌어 이웃에 봉사하고, 제품으로 건강을 향상하자는 창업 당시 품은 소명을 비로소 구현하는 셈"이라고 했다.

럭스나인은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혁신제품 전시회 CES에 바디로그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필생의 역작이야말로 궁극의 유혹이다"라는 말을 남긴 피카소를 떠올리며 제품 개발에 매달렸다고 했다. 국내외 의료시장을 비롯해 요양병원, 일반 가정에서 이 제품을 찾을 것으로 김 대표는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문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개인전, 한국 국제아트페어(KIAF) 4회 출품, 울산 국제사진페스티벌 초대작가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가했다. 판매수익금은 물론 기부했다. 이정선 기자

(23.3×14.1)cm

에너지경제
2022년 12월 06일
13면 (인물)

동성케미컬,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지속적 후원, 문화예술 저변확대

동성케미컬이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단체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동성케미컬은 지속적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지역 중심의 후원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동성케미컬 관계자는 "동성케미컬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메세나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아름 기자



동성케미컬이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왼쪽), 강석원 동성케미컬 전략실장

(17.7•6.5)cm

대구신문
2022년 01월 02일
(문화)

대구문화재단 새해 주요 사업...'문화도시 대구' 브랜드 가치 향상 집중

황인옥

생애주기→분야별 지원 개편
작년 개관 생활문화센터 운영
구·군 협력 반기별 생활문화제
5월 가스총회 연계 컬러풀축제
각종 사업 투명성·신뢰성 확보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의 2022년 새해는 시민 지원과 조직역량 강화로 모아진다. 재단은 올 한해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과 문화도시 대구 브랜드를 높이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문화예술 창작·창업 기반 강화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 △시민정신 확산과 문화예술축제 업그레이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 경영 4개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우선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예술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원체계를 전면 리모델링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예술인 창작, 복지 안전망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지방정부 또는 관변단체가 주도해온 각종 축제와 시민주간 행사 등도 시민주도형으로 바꾼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대구컬러풀페스티벌은 5월 하순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와 연계해 거리퍼레이드와 메타버스 콘텐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축제로 꾸며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단 내부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발족에 이어 새해에는 옴부즈만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문화예술 후원매개 등 가치기반 경영 실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창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규모를 2021년 18억 원에서 2022년 25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지원체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생애주기별, 활동주기별 지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통예술의 전수·전승분야와 인디, 예술영화 분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동시에 메타버스 시대 선점을 위해 올해도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대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1년에 새로 문을 연 아트랩범어(옛 범어아트스트리트) 공간을 활용해 창작과 창업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기획자 양성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구현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시험가동에 들어간 생활문화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생활문화 지킴이(생동지기) 1만 명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생활문화 활동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시민 갤러리와 생동버스킹 개최 횟수 등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군 생활문화센터와 협력해 반기별로 대구생활문화제를 개최해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에 나서고 생활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구·군에 파견하는 사업도 펼친다.

기존 사업으로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문화예술교육과 인생나눔 교실 등 시민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일 계획이다.

◇ 각종 문화예술 축제도 시민 주도로 변모

새해에는 시민들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대구시민 정신 확산을 위해 차별화된 시민주간 행사와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월 21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시민주간 행사는 올해부터 시민주도형 행사로 바뀐다.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시민주간 총감독이 시민주간 행사 전반을 총괄하고,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 시민정신 발굴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학술 프로그램을 연중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국채보상운동 정신과 2.28민주운동 정신, 그리고 산업화 정신 등 대구시민정신 브랜드가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까지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한 대구컬러풀페스티벌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와 연계한 친환경 퍼레이드로 개최하여 글로벌 축제 도약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권경영과 투명경영으로 공적 기능 강화

안으로는 대구문화재단이 사회적 가치구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친화 경영을 위해 지난해에 발족한 인권경영위원회를 본격으로 가동하는 동시에 재단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예술진흥사업 분야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대구문화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후원매개 대상 수상을 계기로 새해에는 문화기부 운동도 전사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옥이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안팎의 평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찾아오기 쉬운 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문화매일

2022년 11월 21일
(대구/경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1회 대구 문화예술 메세나 페어 개최

대구 최초 메세나 페어로 지역 선진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 도모

윤근수 기자



▲ 포스터

[문화매일=윤근수 기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30일 경창산업 대강당에서 대구 지역 최초로 '문화예술 메세나 페어'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회 대구 문화예술 메세나 페어'를 통해 대구 지역 선진기업과 문화예술이 결연하여 상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을 열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에 주목하고, 향후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구지역 메세나 활동의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진흥원은 대구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문화예술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맺고 대구메세나협의회 추진단을 발족하여 대구지역 메세나 활동의 도약을 알린다. 행사 간 참여 기업이 참여 예술인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후원 매개식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본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사전 행사로 '제1회 대구 문화예술 후원매개 세미나'를 11월 28일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화여자대학교 김효근 교수의 '문화예술 후원 매개의 개념 및 중요성'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매개 전문가 김민지 책임연구원의 '문화예술 후원 매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의 '지역의 메세나 활성화 전략 제안'으로 구성된다.

세미나를 통해 지역에서의 후원 매개 개념을 확산하고 후원 담당자에게는 실무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후원매개 세미나에는 기관별 후원 매개 실무자, 기업 CSR 담당자, 예술인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후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일보

2022년 11월 24일
(문화)

대구문예진흥원 메세나협의회 추진단 발족...이번엔 탄력받을까

최미애

대구상의와 30일 협약체결 실질적 연결…후원금 전달 매개식도

2016년 발족했던 협의회 지지부진…'대구형 메세나' 정립 목소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메세나협의회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해 향후 대구의 메세나(mecenat·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 공헌 활동)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6년 대구메세나협의회가 발족했지만 활동이 지지부진해 이번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구형 메세나'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30일 대구 달서구 경창산업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회 대구 문화예술 메세나 페어'에서 대구메세나협의회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구 지역 메세나 활동의 도약을 알릴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대구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다. 앞서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지난 14일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메세나협의회 발족 계획을 밝혔다. 이날 메세나 페어에선 대구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문화예술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맺는다. 참여 기업이 예술인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후원 매개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28일에는 사전행사인 '제1회 대구 문화예술 후원 매개 세미나'를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연다. 김효근 이화여대 교수의 '문화예술 후원 매개의 개념 및 중요성'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매개 전문가 김민지 책임연구원의 '문화예술 후원 매개 우수사례 공유',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의 '지역의 메세나 활성화 전략 제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다만 메세나협의회가 과거 이미 발족한 바 있어 새롭게 추진되는 메세나협의회를 놓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2016년 5월 지역 기업과 언론, 대학, 법조, 문화예술계 등이 참여한 대구메세나협의회가 발족했다. 이때 TBC대구방송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협의회는 문화예술계 1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컬처 아너스 클럽'을 신설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예술단체의 1대 1 매칭펀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발족 이후 활동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협의회 구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해서 메세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형 메세나'를 정립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실정에 맞는 메세나의 형태를 찾고 진흥원은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로서 어떻게 문화예술 후원단체를 발굴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후원 단체는 메세나를 통해 뿌듯함을 느끼고, 예술인들은 더욱더 창작활동을 할 맛이 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메세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경북신문

2022년 11월 28일
(문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문화예술후원 매개 기관의 역할'에 관한 발제 및 종합적 토론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메세나 관련 조례안도 포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8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3층 수창홀에서 대구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진흥원은 지난해 '2021년 올해의 후원인 대상 후원매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지역기업과 문화예술 상생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후원매개 세미나 및 문화예술 메세나 페어 등을 추진하며 문화예술후원 매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 발제 및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며 대구경북연구원 오동욱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는 한국메세나협회 이승관 사무처장이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후원매개 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창환 한국예총 대구시연합회장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강용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부장이 참석하며 발제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이번 토론에선 김재우 위원장의 '대구시 메세나 기업 확대 및 예술후원 진흥 조례안'을 들어볼 수 있어 후원문화 정착에 기대가 예상된다.

김정길 진흥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문화예술 후원매개 활성화와 대구 문화예술단체(인)의 안정적 창작 기반을 다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관별 실무자, 기업CSR 담당자, 예술단체(인)를 비롯해 문화예술 후원매개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화매일

2022년 12월 04일
(대구/경북)

대구 문화메세나 활동의 재도약 선포,'제1회 대구 문화예술 메세나 페어'성공리에 개최

대구상공회의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실질적 연결

윤근수 기자



▲ 대구 문화메세나 활동의 재도약 선포,'제1회 대구문화예술 메세나 페어'성공리에 개최

[문화매일=윤근수 기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 상생의 가치와 후원매개 개념 확산을 위한 '제1회 대구문화예술 메세나 페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예진흥원 김정길 원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대구은행,▲삼보모터스(주),▲(주)루브캠코리아,▲경창산업(주),▲삼익THK(주),▲(주)서한,▲벽진바이오텍,▲PHC 8개 기업의 주요인사가 참석했고, 메세나 협의회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과 '대구형 메세나' 정립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실질적인 메세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문예진흥원과 대구상공회의소 간 원활한 메세나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메세나 기업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 ▲메세나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한 홍보 추진 등 기업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을, 문화예술계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와 더불어 신홍식 문화기부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의 어려운 (예비)예술가를 위해 100만원씩 후원해준 총 10명의 엔젤천사를 기리는 후원금 전달식도 개최됐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해준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들어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행사장은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문예진흥원 김정길 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메세나 저변이 확대되면 기업과 예술단체의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대구의 기업들이 문화공헌에 대한 인식 제고, 기부문화의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예진흥원은 대구 新르네상스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제2의 국채보상운동 정신으로 250만 시민과 언론이 동참한 '대구예술사랑운동' 전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 과제를 정립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일에 개통된 문예진흥원 범시민 '후원 ARS'를 통해 대구문화예술사랑 후원을 실천할 수 있다.

한국경제
2022년 12월 21일
007면 (사회)

BNK경남은행, 콘서트·오페라 후원 … 지역 문화예술계 활력 주도

최홍영 은행장, 경남메세나협회장 맡아 지원 강화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콘서트와 오페라 공연 등을 개최·후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홍영 BNK경남은행장은 지난해 5월 경남메세나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행보는 은행장의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NK경남은행은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사로서 지난 9월 진주에서 열린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후원하고, 10월 경남오페라단이 공연한 '나비부인' 관람행사에 지역민을 초청했다. '울산사랑 행복콘서트'를 개최해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창원국제실내악축제, 국립오페라단의 '삼손과 데릴라' 공연, 항일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린 오페라 '일사각오' 공연 등 많은 예술 공연을 후원했다.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 축제인 '2022 맘프(MAMF)', 창원 조각 비엔날레,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후원하며 지역 문화예술과의 동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BNK경남은행은 지난 6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경남메세나대회'를 열었다. 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은 문화예술 행사를 후원하는 것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BNK경남은행 본점 1층에서 운영 중인 'BNK경남은행갤러리'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대관해줬다. 지난해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7월부터 전시를 시작해 9차례 전시회가 열렸고, 올해 14차례 전시가 이뤄졌다. 28명의 지역 작가 및 단체가 참여해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여 호평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인터뷰와 작품 소개를 담은 콘텐츠 '픽스토리(Pic-Story)'를 제작해 홍보를 지원했다.

2019년 8월 개관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도 BNK경남은행이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에 문을 열었다. 88평 규모의 사무실을 리노베이션해 북카페 형태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재능 있는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로 31회를 맞은 'BNK경남은행 백일장 및 미술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문화행사로 성장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봄에 열리는 이 행사에 많은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1만 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돼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는 웹툰 부문을 추가해 MZ세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 재능 있는 청소년 인재를 후원하는 '청소년드림스타' 사업도 시행 중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여 명의 지역 곱나무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방송사 트로트 오디션에서 활약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은 남승민도 드림스타 중 한 명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후원 성과를 인정받아 BNK경남은행은 2020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BNK경남은행은 올해도 지역 대표 은행이자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사로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공헌 사업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홍영 BNK경남은행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는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힘든 시간을 견뎌낸 지역 문화예술계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올 때까지 BNK경남은행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혜연 기자
(95.9×17.7cm)

문화분권 꽃피우려면

기업-예술인-지자체 손잡고 동행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자생력 키워야









▲경남메세나 장학금을 받은 유재연 플루티스트가 프리하 봄 국제 공무원에서 1위를 차지했다./경남메세나협회

분권과 자치가 시대의 화두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소멸', '서울공화국'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분권이 제시되지만 문화 관련 정책은 갑갑이 멀다. 지난 2001년 정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지정하며 지방문화분권 시대를 맞는 듯 했다. 20년이 흐른 지금, 예술인,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크게 없는 실정이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실태와 과제, 기업·예술계·메세나 역할 등을 짚어본다.

◇'이건희 기증관'으로 봄 붙은 민심= 지난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국보급 문화재 2만3000여점을 보존·전시·활용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가 서울로 결정되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비수도권 지역이 크게 반발했다. 정치·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서울공화국'을 강화하는 결정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경남에선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등이 '이건희 기증관' 유치에 나섰다 고배를 마셨다. 경남도는 이 결정에 대해 "국가의 주요 문화시설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방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과 기대, 국민의 문화 기본권 향상과 문화분권에 대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화분권,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관련 인사들이 모여 두 차례에 걸친 공론장을 만들었다. 이른바 '백가쟁명'과 '백화제방'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에 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년의 흐른 지금, 얼마나 실현됐을까.

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한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수도권이 미술관·박물관 인프라와 콘텐츠를 독점하고 있다. 문화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술관 267개 중 104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남은 10개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청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연구자, 예술인을 주축으로 '문화분권'으로 이를 타개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곧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과제는= 문화분권이 튼튼히 자리 잡으려면 재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정책 범위와 주체, 진흥 체계에 대한 정책적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무를 어떻게 나누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역할 분담체계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중앙-지역의 낡은 위계질서를 없애고, 재원 부족과 정치적 영향력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의 문화자치 역량을 키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이 새로운 지역문화 진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과 인재 양성이다. 인재 역외유출을 막으려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문화생태계가 형성되려면 문화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에선 한계가 뚜렷하다. 의미있는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재·산업·물류·교통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면 민간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다.

◇메세나, 지역문화 매개자 역할 '톡톡'= 지역 내 문화 활성화 대안으로 메세나를 들 수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메세나 활동이 늘고 있다. 메세나 활동은 문화를 공유하는 각 주체(기업·예술·시민 등) 모두에게 기치창출을 지원한다. 국내엔 한국메세나협회와 경남, 제주, 대구, 세종, 부산에 메세나 단체가 있다. 국내 지역 최초 메세나협회인 경남메세나협회는 2007년 창립한 후 꾸준히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기도 했다.

메세나 사업 가운데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주목할 만하다.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메세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연팀 수가 2008년 28개팀에서 2021년 175개팀으로 괄목할 성과를 냈다. 지원금은 2019년 26억3800만원, 2020년 26억4480만원, 2021년 31억73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남메세나 하선주 사무국장은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공연장 폐쇄 조치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많아 2020년 실적이 다소 줄었다"며 "지난해의 경우 175개팀이 결연을 맺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고 분석했다.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안대혁 교수는 "최근 기업들은 지역사회와 예술인이 함께 발전해 나갈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 금전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예술인 채용, 문화마케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기반이 돼야 개인의 기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예술 자생력 키우는 '메세나'=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메세나 활동을 펴고 있다. 여건창호·이건산업은 인천에 기반을 잡으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1990년부터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지방에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음악영재들의 교육지원과 후원을 통해 사회환원을 추구한다는 평을 받았다.

경남은행 역시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2006년 지방은행 최초로 공익재단인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출범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 본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운영과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지역희망 콘서트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넓히고 있다.

인재 발굴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프라하의 봄 뮤쥬르에서 1위를 한 유재연 플루티스트는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출신인데, 단원 시절 김호준 지휘자의 추천으로 경남메세나협회 예술영재 장학금을 받았다.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은 경남메세나 회원사인 화성지앤아이(주)로부터 2009년도부터 13년째 지원받으며 지역의 음악학도를 길러내고 우수 연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가야오페라단 강동민 단장은 "김해에서 2007년에 오페라단을 설립해 운영난을 겪었는데, 경남메세나 매칭펀드 수혜로 공연을 이어가게 됐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라는 측면에서 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실질적 도움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메세나가 지역 예술단체가 자생력을 키우고 운영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들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재원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구성원 협업해야=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시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려면 예술인과 시민, 기업,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부울경문화재단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방에 대한 서울의 '문화 삼투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분권, 문화자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남·부산·울산 문화연대 모임도 태동했다. 지난달, 출범을 앞둔 문화연대 결성 준비위원회가 창원에서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지역분권을 앞당길 문화연대체를 만들고자 결집에 나섰다고 했다.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경남메세나지 기고를 통해 "지역과 지역문화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기업과 예술가, 행정과 지역민 등 지역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수평적 구조 속에서 지역정책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갈 길 먼 문화분권

정부 '지역문화의 해' 2001년 지정했지만
수도권 문화독점 여전
전국 미술관 267개 중 104개 수도권 집중
경남은 10개 불과
문화 격차 지속·심화

해결 과제는

재정·인프라 구축
정책 범위와 주체
사무 역할분담 체계 등
정책적 공론장 필요

메세나의 역할

지역 문화활성화 대안
경남메세나협회
예술지원 매칭펀드
작년 175개 '역대 최고'
예술인·지자체 잇고
문화분권 앞당길
매개자 역할 '톡톡'

경남도민일보

2022년 02월 28일
14면 (인물)

올해도 힘 합쳐 지역 예술 도울게요

경남메세나협회 정기 이사회·총회
올해 180개 이상 팀 결연 달성 목표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24일 창원 성산구 호텔인터내셔널에서 2022년 정기 이사회·총회를 개최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이날 지난해 기업과 예술단체 175개 팀이 결연을 맺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지정 기탁 후원을 포함해 37억여 원이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2021년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지었다. 2022년에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지역문화특화사업·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 등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기업과 예술단체 180개 팀 이상 결연을 달성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행사에서는 임원 선출도 이뤄졌다. 이날 최홍영 BNK경남은행 행장의 회장직 연임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인산가 김윤세 회장과 ㈜화인테크놀리지 서영욱 대표이사는 협회 부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이사를 맡고 있던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이상호 회장, 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 조보헌 회장은 이사직 연임이 확정됐다.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박성재 국장은 이사로 교체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청호산업(유) 이동기 회장이 유임됐다. 신규 임원진으로는 우수AMS㈜ 김선우 대표이사가 부회장에 선임됐다.

새 이사로는 경남오페라단 이용순 이사장과 창원대학교 음악과 이주은 교수가 선임됐다. 이로써 2022년도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감사 2명, 이사 14명, 고문 4명 등 31명으로 꾸려지게 됐다.

최홍영 경남메세나협회장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경남의 황금시대를 열어 가는 데 메세나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2007년 창립 이후 기업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와 예술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았다.

/최석환 기자 csh@idomin.com



경남메세나협회 2022년 정기 이사회·총회가 지난 24일 창원 성산구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열리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

(25.4×11.6)cm

예술단체 손 잡고 문화씨앗 뿌린 15년 전국 롤모델 성장





▲밀양에서 열린 40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지역문화특화사업 중 하나로 후원했다.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술단체 '가야오페라단'. /경남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 15주년 발자취 돌아보며

지역과 지역문화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중요한 플랫폼이 된다. 예전의 기업들은 문화적 이미지 제고 등 간접효과 창출을 위해 문화를 매개로 활용해 왔지만, 이제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메세나 활동을 '하면 좋은 일'에서 '해야 할 일로' 인식한다. 메세나 활성화는 사회 공동체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균형감 있게 추구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2007년 전국 광역단위 중 1호로 설립된 ㈔경남메세나협회, 15년 결실을 돌아본다.



경남메세나협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남연극제를 후원하고 있다. 단체 금상은 경남메세나협회장상에 해당한다.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술단체 '통영옻칠미술관'. /경남메세나협회

◇메세나 의미와 기원 = 메세나(Mecenat)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이나 지원자'를 뜻하는 프랑스어다. 어원은 사람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제국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Gaius Maecenas), 그는 시인 호러스·버질 등 당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메세나라는 용어는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를 발족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미국 기업의 역사를 보면 산업에서 창출한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국 체이스 맨해튼 은행 회장이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에 할당하고자 건의하면서 출발했다. 카네기나 록펠러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은 현재 빌게이츠 재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겐하임'은 메세나 운동 표본으로 꼽는 대표적인 사례다. 구겐하임은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계 유태인 가문이다. 미술계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으며 점차 수집 작품이 늘자 1959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신축했다.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달팽이 모양의 미술관은 지금도 뉴요커들이 사랑하는 명소다.

◇경남메세나협회 발걸음 = 한국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설립되고 메세나 운동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경남메세나협회는 200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돼 15년 동안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에 앞장서며 가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협회 회장은 경남은행장이, 명예회장은 경남도지사가 맡고 있다. 회원사는 현재 기업 209곳·기관 2곳·예술단체 4곳·개인 2명으로 전체 217곳이 참여하고 있다.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호에 이름이 올랐다. 앞서 2014년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뽑은 결과다. 전국에서는 경남메세나협회를 비롯해 한국메세나협회·서울문화재단·부산문화재단 등 8곳이 우수단체로 인증받았다.

하선주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장은 "자치단체 단위에서 자료 요청과 문의가 많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롤모델로 인정받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이해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남은 메세나를 통한 기업-예술 상생 가치를 높게 여긴다"며 "발 빠른 출발과 지속적인 매칭 사업 결과 곳곳에서 결실을 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7년 광역자치단체 최초 설립
기업·예술단체 등 회원사 217곳
누적 결연 1700곳·지원금 300억
매칭지원으로 지자체 참여 견인

◇기업-예술 지속적인 상생 = 기업과 예술의 상생. 그 정신이 뿌리를 내린 결과 15년 동안 맺은 열매는 지표로 확인 가능하다. 2008년 28곳(중소기업 22·대기업 6)이 결연에 참여한 이래로 2022년 12월 7일 기준 196곳(중소기업 163·대기업 33)에 이르렀다. 지원금은 첫해 7억 6800만 원에 시작해 올해 32억 9000만 원 수준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결연 1700곳, 누적 지원금 3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남메세나는 후원 주체에 기업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나서도록 견인했다. 중소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면 1대 1 비율로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700만 원을 지원하면 경남도가 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문화예술 단체는 1400만 원 매칭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기초단위에서는 창원·김해·진주·통영·사천시가 참여하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가 대한민국 1호 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받았다. /경남메세나협회

한편 자치단체 예산 절감에 따라 매칭 지원금 축소로 이어져 부침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2021년도부터 기존 2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매칭비를 줄였고, 통영시 경우도 2023년 예산을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그 결과 1대 1이 아닌 1대 0.8로 매칭비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010년부터 메세나협회 회원사로 참여한 기업가는 자치단체 협력을 주문했다. 이종호 ㈜오엔이 대표이사는 "13년째 경남메세나협회에 참여하면서 지역 여러 음악·미술단체와 교류해 왔다"며 "예술단체가 든든한 후원금으로 질 좋은 작품을 내놓으면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도민이자 시민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술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특화사업 활성화 = 경남메세나는 지역문화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면서 '지역이 곧 세계다'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협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남연극제를 후원하고 있다. 단체 금상도 경남메세나회장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특히 올해는 40회 대한민국연극제가 밀양에서 개최되어 준비 과정을 <메세나지> 등에 홍보하면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이 밖에도 '행복한 나눔 공연'으로 문화소외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 사업과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즐거움 나눔티켓'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정둘선 통영옻칠미술관 실장은 "전통 예술분야가 관심을 잃어가는 가운데 경남메세나가 있어 찾아가는 전시도 열고 국내외 작가 레지던시 사업 등을 펼칠 수 있었다"며 "작품 판매와 통영옻칠미술관 방문으로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강동민 김해 가야오페라단장은 "2016년 메세나 참여 이후 도움을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김해 지역 기업들에 경남메세나를 알리고 회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해마다 한 업체 이상 가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협회의 오랜 노하우 속에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남메세나 홍보와 회원사 참여를 이끌고 있다. /박창민 기자 pdj@kdomin.com

스포츠조선

2022년 12월 30일
(문화)

경남메세나협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공로 빛났다...장관 표창



[경남메세나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사단법인 경남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2014년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제1호로 인증받은 바 있다.

협회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부문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건 협회가 처음이라고도 설명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협회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등을 통해 누적 결연팀 1천700개 팀, 누적 지원금 300억원을 달성했다.

이밖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 보전을 위한 '지역문화특화사업',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강화를 위한 '문화나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홍영 경남메세나협회장(BNK경남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겠다"며 "문화예술로 도민들 삶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간 결연을 통해 기업에는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문화예술단체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2007년 출범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

내외일보
2022년 12월 08일
11면 (지역)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2022 경남메세나 대회' 개최

기업·예술단체 상생협력 2022년 163개 단체 결연으로 역대 최고 성과
메세나 대상 ㈜범한퓨얼셀, 메세나인상 조우성 ㈜영광산업 대표 수상



경남도가 후원하고 경남메세나협회(회장 최홍영)가 주최하는 '2022 경남메세나대회'가 6일 오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지역의 문화예술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의 공로를 기리고,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결산하며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세나대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기업과 개인에게 대상, 메세나인상, 문화경영상, 문화공헌상, 아트앤비즈니스상(Arts&Business상), 문화예술유망주상, 총 6개 부문에 걸쳐 수여됐다.

올해 경남메세나 영예의 대상은 범한퓨얼셀(회장 정영식)이 수상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을 시작해 경남관악단, 경남리틀예술단 등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문화예술로 보다 행복하게 소통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으며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활동에 모범을 보인 개인에게 수여되는 메세나인상은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내면을 향기롭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조우성 ㈜영광산업 대표에게 돌아갔다.

▲문화경영상은 원창단조(대표 이현석) ▲문화공헌상은 ㈜세영(대표 박영숙) ▲아트앤비즈니스상(Arts&Business상)은 ㈜강민(대표 강원호)과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현악단(감독 주원배)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차세대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문화예술유망주상에는 이희상(한예종 3학년, 트럼펫)·박지훈(진주중 2학년, 타악기) 학생이 선정됐으며, 메세나대상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메세나 활동을 통해 기업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손잡고 경남의 문화예술을 꽃피워가고 있다"며 "메세나협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든든한 후원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서 경남의 문화예술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메세나협회는 경남 지역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2007년에 도내 79개 기업이 모여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현재 217개의 회원사를 확보했고, 1,443개팀 결연을 성사해 누적 지원금 266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메세나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남/주영서 기자 jys@naewoeilbo.com

(23.6*16.2)cm

東亞日報
2022년 12월 29일
(경제)

IBK기업銀 로비, 신진작가 예술공간 변신

설치미술-회화 유망주 작품 전시 '퇴근길 라이브 음악회'도 큰 호응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 설치된 'IBK아트스테이션' 작품. IBK기업은행 제공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가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전시장과 음악회 공간으로 변신해 주목을 받고 있다.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은 올해 본점 로비에서 설치미술·회화 분야의 유망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IBK 아트스테이션'을 총 3회에 걸쳐 개최했다. 본점 로비의 전시 공간은 가로 45m, 세로 25m, 높이 7m로 널찍하고 층고도 높아 규모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설치미술 작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기업은행은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과 시민에게 위로와 응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청년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IBK퇴근길 뮤직 라이브'도 개최했다. 콘서트는 본점과 한남동 고객센터, 부산 지역 등 총 11회 차에 걸쳐 진행됐다. 윤종원 은행장은 "한 곡의 음악으로도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며 "퇴근길 음악회가 직원들에게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는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이어 11월 2~6일에는 본점 옆 성큰가든과 지하 아케이드에서 시각예술 전시 및 아트마켓 '더아트프라자'도 열었다. 을지로 인근 직장인과 시민 1만3000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룬 더아트프라자는 창작자와 기획자, 갤러리 등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를 연결해 지원하는 전시 행사. 입장료·참가비·수수료가 없는 대안적 아트마켓이다.

이번 전시는 기업은행 본점이 위치한 을지로 지하상가 공실을 재생해 작품을 전시했다. 지하상가에 있는 꽃집, 양복점 등의 공간 특성을 살려 플라워숍, 의상실, 디저트숍, ATM 등의 콘셉트로 연출된 12개 공간에서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기업은행은 이달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인증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전기신문
2022년 12월 06일
(산업/무역)

GS파워, 문화예술후원 인증기관 인증

정재원 기자

지역주민들의 니즈와 희망을 반영한 메세나 사회공헌 높게 평가받아



이성규 GS파워 사회공헌팀장(오른쪽)이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GS파워)

GS파워(사장 조효제)가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니즈와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메세나 사회공헌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1곳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7곳을 새롭게 인증하고 2일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인증식을 개최했다.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은 모범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롭게 인증한 8곳을 포함해 법률이 시행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61곳이 인증을 받았다.

GS파워는 2000년 설립 이래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안양, 부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문화예술 단체 순수 지원 등 3가지 유형의 메세나 사업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사내 사회공헌팀이 메세나를 전담하면서 지역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Grow with Singing 가족합창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후원, 다문화가족앨범 고향 보내기 프로젝트 등 사회적 약자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단체 후원을 통해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에너지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힐링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부천시민 희망콘서트를 주최하는 등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GS파워 관계자는 "GS파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니즈와 희망을 반영한 메세나 사회공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원 기자 one@electimes.com